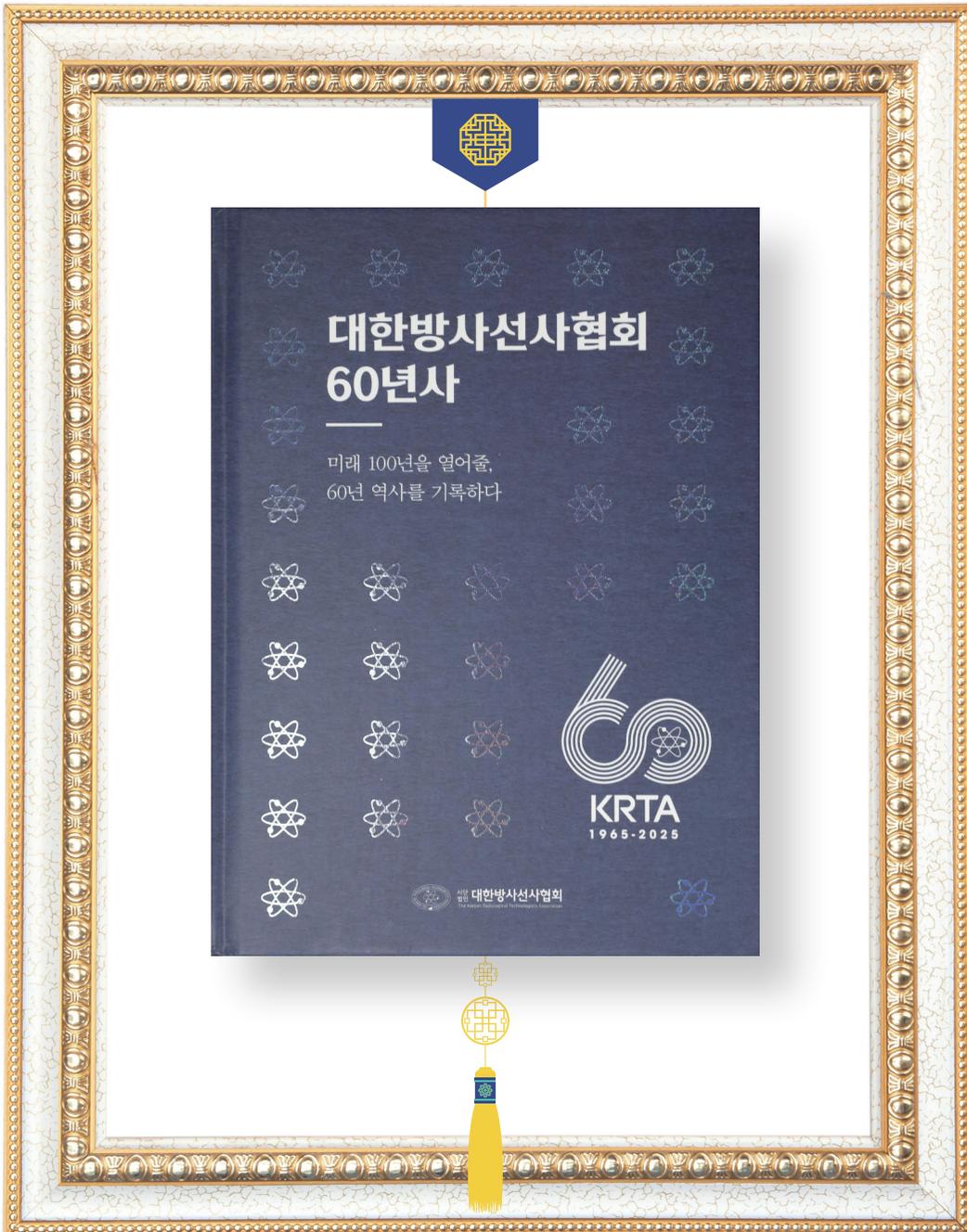


# WITH KRTA

The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Association

방사협보 2025 vol.403



창립 60주년을 맞아 발간된 『대한방사선사협회 60년사』



대한방사선사협회

9 772765 341001  
ISSN 2765-3412



# WITH KRTA

2025 vol.403



표지 이야기  
창립 60주년을 맞아 발간된  
『대한방사선사협회 60년사』

발행일 2025년 10월 2일(통권 403호)  
 발행인 한정환(대한방사선사협회장)  
 편집위원장 조원홍(삼성서울병원)  
 미디어혁신이사 임기선(충북대학교병원)  
 편집위원 조선일(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양민재(서울대학교병원), 심지나(세브란스병원), 이호일(세브란스병원), 서영석(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백인성(이대목동병원), 성열훈(청주대학교), 김규형(영지병원), 김기정(건국대학교병원), 최관우(원광보건대학교), 손진현(신구대학교), 안예은(대한방사선사협회)

발행처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전화 02-576-6524  
 팩스 02-576-6526  
 이메일 krta@krta.or.kr  
 홈페이지 www.krta.or.kr  
 광고 문의 협회 02-576-6524  
 편집/디자인 여울  
 인쇄 송현문화

## 건강한 조직

KRTA가 전하는 이슈 & 뉴스

- 04 중앙회 소식  
발로 뛰는 협회  
KRTA News
- 20 사·도회 소식
- 30 전문학회 소식



## 건강한 소통

KRTA와 함께하는 공감 콘텐츠

- 34 Essay  
함께 흐르되, 서로를 잃지 않는 길 위에서
- 36 Review  
몽골방사선사협회 첫 국제학술대회 'MCR 2025' 참석
- 38 Review  
마카오에서의 특별한 경험  
제25회 마카오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를 다녀와서
- 40 Interview  
방사선사에서 인증조사위원까지, 환자 안전을 향한 발걸음
- 42 Study  
시드니 거리에서 시작된 글로벌 챌린지
- 44 Webtoon  
숨 참으세요



## 건강한 정책

KRTA의 활동과 나아갈 길

- 48 Issue  
'전문방사선사' 관련 보건복지부에 드리는 제언
- 51 Sketch  
대한방사선사협회의 대한실드엔지니어링 탐방기
- 56 Review  
2025 제25회 아시아-오스트랄라시아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AACRT) 참석 보고서
- 60 Study  
ChatGPT를 이용한 통계분석\_독립표본 t-검정



## We are RT's

- 32 공지사향  
보수교육 이수 면허신고 하기!  
전문방사선사 자격증 갱신 안내
- 65 퀴즈 이벤트  
독자퀴즈



웹진 바로가기



(사)대한방사선사협회  
홍보동영상

WITH KRTA는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계간지입니다.  
 WITH KRTA는 협회 홈페이지(www.krta.or.kr)와 웹진(webzine.krta.or.kr)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WITH KRTA에 게시된 글과 사진은 대한방사선사협회의 공식 견해가 아닌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으로 대한방사선사협회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방사선사 면허 관리를 위한 필수 수칙

# 보수교육 이수 면허신고 하기!!

## 1 보수교육 이수

- 매년 8시간 이상 교육 이수
- 오프라인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 교과목은 면허신고 시마다 2시간 이상 필수 이수

\*방사선사는 국가면허를 소지한 보건의료인으로 보수교육 이수는 의무 사항입니다.

## 2 면허신고 하기

- 대한방사선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면허신고센터 접속하여 면허신고서 작성
- 보수교육 내역이 면허신고센터에 등록되어야 면허신고 가능

\*의료기사등에관한법을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 ① 의료기사 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 등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 3 방사선사로 당당하게

- 면허 미신고 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행정처분 시 면허 효력 정지
- 미신고로 인한 행정처분 시 면허신고를 실시하는 시점부터 면허효력이 회복됨



# 건강한 조직

KRTA가 전하는 이슈 & 뉴스

### 중앙회 소식 \_ 04

발로 뛰는 협회  
KRTA NEWS

### 시·도회 소식 \_ 20

서울특별시회  
인천광역시회  
대구광역시회  
부산광역시회  
경상북도회  
전라남도회

### 전문학회 소식 \_ 30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대한초음파의료영상학회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

# WITH KRTA

발로 뛰는 협회

발로 뛰는 협회

2025 June

- 6.3.~7.
  - 제33차 태국 학술대회 및 제25차 아시아-오스트랄라시아 방사선사 학술대회(AACRT) 및 제11차 동남아시아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
- 6.9.
  - 2025년 제2차 학제단일화 TFT 회의
  - 대한영상치의학기술학회장 미팅
  - 홈페이지 DB 개편 관련 업무활동
- 6.11.
  -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제6차 정기회의
  - 법제부 & 복지·권익부 업무활동
- 6.12.
  - 제3회 방사선사의 날 장소 사전답사
  - 간호법 시행령 관련 복지부 회의
- 6.13.
  - 제6차 상임이사회의
  - 제60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준비 회의
- 6.14.
  - 제1차 법제위원회 회의
  - 2025년 제1차 권익보호위원회 회의
- 6.16.
  - 제1차 돌봄 통합 지원법 TFT
  - 총무부&사업·보험부 업무활동
- 6.17.
  - 재무부 & 정책연구원 업무활동
- 6.18.
  - 제4차 운영위원회의
- 6.19.
  - 교육부 & 법제부 업무활동
- 6.20.
  - 국회 일정
- 6.21.
  - 2025년 제22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구광역시회 학술대회
- 6.23.
  - 제1차 국제교류위원회 회의
  - 총무부 & 교육부 & 사업·보험부 업무활동
- 6.25.
  - 법제부 업무활동
  - 제2차 청구실명제 TFT 회의
  - 보건복지부 미팅
- 6.26.
  - 재무부 업무활동
  - 제2차 방사협보편집위원회의
- 6.27.
  - 보건의료연대 미팅
  - 제6차 사무국 업무회의
  - 제7차 기록보존위원회의
- 6.28.
  - 법제부 업무활동
  - 무료 법률상담
  - 제1차 정도관리 측정 사업

- 6.28.~29.
  -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산하 전문학회 감사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
- 6.30.
  - 제60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준비 실무자 회의

2025 July

- 7.1.
  - 제1차 전문방사선사시험원 운영위원회의
  - 2025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운영실태 점검일
- 7.2.
  - 제2차 돌봄 통합 지원 TFT 회의
  - 제5차 정책연구위원회 회의
- 7.3.
  - 협회 회무
  - 총무부 & 재무부 업무 활동
- 7.4.
  - 한국의료방사선안전관리협회 워크숍
  - 재무부 업무활동
- 7.5.
  - 한국의료방사선안전관리협회 워크숍
  - 제47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종합학술대회

- 7.5.~6.
  - 보건의료정책연대 워크숍
- 7.7.
  - <시니어 라이프 ON> 대담프로그램 출연
  - 기록보존위원회 업무 활동
  - 전문방사선사 자격제도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의견 관련 협회 대응 마련
  - 협회 회무

- 7.8.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미팅
- 7.9.
  -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제6차 정기회의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간담회

- 7.11.
  - 제7차 상임이사회의
- 7.12.
  - 직능단체연합 미팅
  - 무료법률상담
  - 제2차 정도관리 측정사업

- 7.14.
  - 제1차 초음파대응 TFT 회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지원실 미팅

- 7.15.
  - 총무부 & 사업·보험부 업무활동

- 7.16.
  - 제1차 회관(연수원)건립 TFT 회의

- 7.17.
  - 제2차 한국방사선교육평가원 운영위원회의
- 7.18.
  - (사)대한방사선사협회 2025년 사안감사
  - 영상품질관리원 임시이사회
  -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의

- 7.19.~20.
  - (사)대한방사선사협회 2025년 사안감사
- 7.21.
  - 제60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준비 2차 실무자 회의

- 7.22.
  - 나이스메디카 업체 미팅
  - 2025년 방사선사 역량 강화 교육 자문회
  - 재무부 업무활동

- 7.23.
  - 법제부 & 전문방사선사시험원 & 대한방사선치료학회 업무활동
  - 제8차 기록보존위원회의

- 7.24.
  - 대한실드엔지니어링 후원 업체 미팅

- 7.26.
  - 제3회 방사선사의 날(창립 60주년 기념 행사)
  - 제235차 정기이사회의

- 7.28.
  - 더불어민주당 직능단체장 간담회

- 7.29.
  - 제3차 청구실명제 TFT 회의
- 7.30.
  - 제1차 추계학술대회TFT 회의
  - 방사선사 고유업무 관련 대한의료기사단체 총연합회 총회장 미팅
- 7.31.
  - 복지·권익부 & 병가 스테이 업무활동
  - 제5차 운영위원회의

2025 August

- 8.1.
  - 협회 회무
  - 총무부 & 사업·보험부 업무활동
- 8.2.
  - 학술대회 준비 업체 미팅
- 8.4.
  -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단체장 미팅
- 8.5.
  - 협회 회무
- 8.6.
  - 제7차 사무국 업무회의



발로 뛰는 협회

- 8.7. 제60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제32차 동아시아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 준비 3차 실무자 회의
- 8.8. 제3회 방사선사의 날 행사 쌀 전달식
- 8.9.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산하 전문학회 감사 (대한인터벤션영상기술학회)
- 8.11. 법제부 업무활동
- 8.12. 제2차 국제교류위원회 회의
- 8.13. 대한방사선사협회 전임회장 미팅
- 8.14. 법제부&대한영상치의학기술학회 업무 활동
- 8.15. 580 국민건강운동본부 홍보 영상 촬영
- 8.18. 법제부 업무활동
- 8.18. 제6차 운영위원회의
- 8.18. 대한방사선사협회 & 시니어티비 업무협약
- 8.19. 제22회 1회차 전문방사선사자격시험 및 제10회 1회차 방사선의학물리사자격시험 문항 사전검수(1차)
- 8.20. 제60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제32차 동아시아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 준비 4차 실무자회의
- 8.21. 2025년 대한방사선(학)과교수협의회 하계연수회
- 8.21. 제22회 1회차 전문방사선사자격시험 및 제10회 1회차 방사선의학물리사자격시험 문항 사전검수(2차)
- 8.22.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25년도 임시총회
- 8.23. 보건복지부 미팅
- 8.23. 제8차 상임이사회의
- 8.23. 무료 법률상담
- 8.23. 제22회 1회차 전문방사선사자격시험 및 제10회 1회차 방사선의학물리사자격시험 사전설치
- 8.23.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산하 전문학회 감사 (대한CT영상기술학회)
- 8.24. 제22회 1회차 전문방사선사자격시험 및 제10회 1회차 방사선의학물리사자격시험
- 8.24.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산하 전문학회 감사 (대한영상치의학기술학회)
- 8.25. 제6차 정책연구위원회 회의
- 8.26. 보건복지부 간담회
- 8.27. 복지·권익부 & 법무부 교정본부 업무활동
- 8.27. 사업·보험부 & 재무부 업무활동
- 8.27. 협회 회무
- 8.28. 시도회 및 전문학회장 간담회
- 8.28. 대한의료기기사단체연합회 워크숍
- 8.29. 제22회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 및 제10회 방사선의학물리사 자격시험(1회차) (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 통합) 합격자 발표
- 8.29.-30. 제2차 중앙관리위원회의 및 워크숍



# 2025년 10월 이후 지회 보수교육 일정



No	실시기관	구분	교육일시	교육명	교육장소
1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	보수교육	2025.10.11(토) 14:00~18:00	제4차 보수교육	ZOOM 온라인 보수교육장
2	대한의료영상정보관리학회	보수교육	2025.10.18(토) 14:00~18:00	제5차 보수교육	청주대학교
3	대한군진방사선학회	보수교육	2025.10.19(일)	제3차 오프라인 보수교육	국군수도병원
4	대한CT영상기술학회	집담회	2025.10.24.(금) 18:30~20:30	부산지부 집담회	좋은 강안병원
5	중앙회	보수교육	2025.10.25(토) 13:00~17:00	제2차 보수교육강사 양성교육	ZOOM 온라인 보수교육장
6	대한방사선치료학회	학술대회	2025.10.25(토)	추계학술대회	서울성모병원 대강당
7	대한인터벤션영상기술학회	보수교육	2025.10.25(토) 10:00-15:00	제6차 보수교육	코엑스컨벤션센터
8	대한핵의학기술학회	학술대회	2025.10.25(토) 11:00~18:00	학술대회	분당서울대학교 헬스케어혁신파크
9	경기도회	보수교육	2025.10.26(일)	4차 온라인 보수교육 방사선 선량&정도관리	ZOOM 온라인 보수교육장
10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보수교육	2025.11.02(일) 14:00~18:00	제3차 연수강좌	ZOOM 온라인 보수교육장
11	중앙회	학술대회	2025.11.08(토) 09:00~18:00	제60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제32차 동아시아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	마곡코엑스
12	경상남도회	보수교육	2025.11.09(일)	제2차 온라인 보수교육	ZOOM 온라인 보수교육장
13	서울특별시회	보수교육	2025.11.15(일) 14:00~18:00	6차 온라인 보수교육	ZOOM 온라인 보수교육장
14	대한군진방사선학회	보수교육	2025.11.15(토)	제4차 오프라인 보수교육	국군수도병원
15	대한군진방사선학회	보수교육	2025.11.16(일)	제4차 오프라인 보수교육	국군수도병원
16	인천광역시회	보수교육	2025.11.22(토)	5차 온라인 보수교육	ZOOM 온라인 보수교육장
17	제주특별자치도회	보수교육	2025.11.22(토)	제2차 온라인 보수교육	ZOOM 온라인 보수교육장
18	대한방사선치료학회	보수교육	2025.11.22(토)	제1차 오프라인 보수교육	전북대학교병원
19	대한초음파의료영상학회	보수교육	2025.11.22(토)	제6차 보수교육	ZOOM 온라인 보수교육장
20	광주광역시회	보수교육	2025.11.22(토) 14:00~18:00	4차 온라인 보수교육	ZOOM 온라인 보수교육장
21	대구광역시회	보수교육	2025.11.23(일) 10:00~14:00	3차 온라인 보수교육	ZOOM 온라인 보수교육장
22	전라남도회	보수교육	2025.11.29(토)	제3차 온라인 보수교육	ZOOM 온라인 보수교육장
23	대전광역시회	보수교육	2025.11.29(토)	2차 온라인 보수교육	ZOOM 온라인 보수교육장
24	전북특별자치도회	보수교육	2025.11.29(토)	제2차 온라인 보수교육	ZOOM 온라인 보수교육장
25	대한방사선치료학회	보수교육	2025.11.29(토)	제2차 오프라인 보수교육	창원한마음병원
26	대한유방영상기술학회	보수교육	2025.11.29(토)	제2차 온라인 보수교육	ZOOM 온라인 보수교육장
27	충청북도회	보수교육	2025.11.29(토) 14:00~18:00	제2차 온,오프라인 보수교육	충북대학교병원 교육인재관 3층 강의실 (온라인 교육장)
28	경상북도회	보수교육	2025.11.29(토) 14:00~18:00	제2차 온라인 보수교육	온라인
29	경기도회	보수교육	2025.11.30(일)	5차 온라인 보수교육 영상의학 안전관리	ZOOM 온라인 보수교육장
30	대한의료영상정보관리학회	보수교육	2025.11.30(일)	제6차 보수교육	ZOOM 온라인 보수교육장(신구대학교)

# 대한방사선사협회, 무자격자 Cone Beam CT 수행 허용한 법원 판결에 강력 항의

“방사선사 고유 업무 침해... 국민 건강과 안전 위협하는 무면허 행위 즉각 시정해야”



최근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가 방사선 검사 중 하나인 Cone Beam CT를 수행한 것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한방사선사협회는 깊은 상실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방사선사의 고유 업무는 60년 전부터 법적으로 보장된 전문 영역입니다.

■ 6만여 방사선사 회원은 심각한 업무 침해와 전문성이 필요한 해당 검사를 무면허자가 할 수 있다고한 판결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으며, 법적 근거와 전문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항의하며 바로 잡아주기를 요구합니다. 더불어 전국 6만여 명의 방사선사는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50여만 회원과 함께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B 의원의 의사 C는 방사선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 A에게 지시하여 20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Cone Beam CT 검사를 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A에게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A

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 의료법과 간호법을 근거로 간호조무사의 진료 보조 업무에 방사선 검사가 포함될 수 있으며, 모든 진료 보조 행위에 의사가 현장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사)대한방사선사협회는 이 사항에 대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사 고유의 업무를 진료 보조 업무라고 한 것은, 국민 건강 보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방사선사를 포함 의료기사 등” 50여만 회원의 심각한 업무를 훼손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 대한방사선사협회 성명서 -

## 무자격자 방사선 검사를 허용한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사)대한방사선사협회는

1.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공익신고제를 강화하고, 방사선사 권익 침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2. 관계 기관 역시 불법 무면허 행위가 확산되지 않게 적극적 지도와 단속에 나서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3. 국회에서 “의료기사 등에 업무의 명확성과 법적 보장”을 위한 공청회 관련 정부 부처 및 유관단체가 함께하며 방안 논의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 첫째, 방사선 검사는 방사선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방사선사를 포함한 의료기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를 규정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 제1조의2 제1호에서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방사선사가 아닌 사람은 방사선 검사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Cone Beam CT 검사는 높은 전문성과 방사선 피폭 관리가 필수적인 행위로,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면허를 가진 방사선사만이 수행해야 합니다.

### ● 둘째, 판결에 적용된 법률과 시기가 부적절합니다.

사건 발생 지점이 2018~2019년이 아닌, 2025년 개정된 의료법과 간호법을 근거로 판결이 내려진 것은 부적절합니다. 특히 간호법은 2025년 법이 적용되는바 이의 적용 시기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간호법 “제12조(간호사의 업무) 제3항,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와 같이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제외됨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 셋째, 무면허 의료행위 확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번 판결은 무면허자의 방사선 검사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만연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더욱 부추겨 환자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할 것입니다.

● 넷째,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선 간호조무사 업무는 의료법상 진료 보조 범위 내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방사선 검사 등은 환자의 안전이 요구되는 전문 영역으로 진료 보조 업무와는 다르며 “의료기사 등의 업무”와 직역 간 역할 및 전문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방사선사 고유 업무는 오직 대한민국 6만여 방사선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

2025년 8월 4일

(사)대한방사선사협회장 한 정 환



# 대한방사선사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제3회 방사선사의 날' 성료

## "대한방사선사협회와 함께한 60년, 세계로 나아갈 100년"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한정환)는 지난 7월 26일 건국대학교병원 지하 3층 강당에서 창립 60주년 기념 '제3회 방사선사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대한방사선사협회와 함께한 60년, 세계로 나아갈 100년"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6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미래 100년의 비전을 새롭게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됐다.

기념식의 시작을 알린 개회사에서 한정환 회장은 "대한방사선사협회는 1965년 7월 31일 창립 이래, 60년 동안 의료현장에서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서 자리를 지켜왔다."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로 전문가로서 방사선 선량 관리, 영상 진단의 정확성 확보 등 의료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방사선사의 수고와 헌신을 기념하는 오늘 이 자리는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며,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도 방사선사의 전문성과 역할이 더욱 빛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60주년 기념식에 정계·의료계를 대표하는 내·외빈이 대거 참석해 방사선사의 날을 함께 축하하며 지역 간 상생과 협력의 의지를 공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인요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자대표자회의 전재진 상근부회장 ▲대한의사협회 박명하 부회장 ▲대한영상의학회 정승은 회장 ▲대한초음파의학회 이재영 이사장 ▲대한간호협회 박인숙 부회장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허봉현 회장(대한안경사협회장) 및 각 단체장 ▲캐논메디칼시스템 김영준 대표 등 보건의로 분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현장 참석이 어려운 외빈들의 축하도 영상과 서면을 통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 남인순 국회의원, 소병훈 국회의원, 김윤 국회의원 등이 영상 축하 인사를 전했다.



며,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미애 국회의원의 방사선사의 제도적 위상 정립과 정책적 연대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와,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 ▲세계방사선사회 ISRRT 나파 풍풍나광 회장, ▲디케이메디칼 솔루션 이준혁 대표이사, ▲바이엘 코리아 안드레위스크 북아시아 책임자 등이 서면 축사로 함께했다.

내빈으로 전임 협회장님들과 대한방사선사협회 16개 시도회, 14개 전문학회 회장 및 임원진 등이 참석하여 전국 방사선사들의 연대와 자긍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기념식 현장에는 전문방사선사 제도화, 검사 청구 실명제 도입, 한국방사선교육평가원 설립 법제화, 방사선학과 학제 단일화 법제화 등 방사선사 직역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 내용을 현수막으로 알리며, 협회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기념식에 참석한 각 정당의 인사들은

축사를 통해 방사선사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며, 관련 제도의 정착과 입법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힘을 실었다.

기념식에서는 협회 창립 60주년의 역사를 담은 기념 영상이 상영되었으며, 방사선사의 역사적 의미와 사회적인 기여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다만, 모든 회원들이 기념식 현장에 함께 할 수 없기에, 대한방사선사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도 중계하며 함께 그 의미를 되새겼다.

해당 라이브 영상은 조회수 1,300회를 기록하며 많은 방사선사 회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순서로 '대한방사선사협회 60년사' 발간 보고와 헌정식이 진행됐다. 60년사 기록보존위원회 이윤식 위원장은 "60년사 책자는 협회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기록한 소중한 자료로, 향후 방사선사 직역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기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고, 60년사 편찬소위원회 이창엽 위원장의 헌정사와 60년사 한글판과 영문판을 각각 한정환 회장에게 전달하는 헌정식을

60년사 헌정식(이창엽 편찬 소위원장)



방사선사 윤리강령 낭독(강철호 부회장)



전임 및 현임 협회장 축하 케이크 커팅식



한정환 회장 개회사





시상식(사도회 공로패 수상자) (앞줄) 사도회장, (뒷줄) 수상자

시상식(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좌)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차상영, (우) 강동성심병원 최용석



시상식(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 (좌)故조석원 방사선사를 대리 수상한 전북특별자치도회 유진오 회장, (우)경기도회 이유식 기록보존위원회 위원장



진행하며 현장에 참석한 모든 내빈과 회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60년사 한글판, 영문판은 대한방사선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방사선사의 역사와 사회적 기여를 널리 알리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사선사로서 협회 60년의 발걸음에 이바지하며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회원들의 공로를 기리는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번 시상은 방사선사 간의 연대와 존중을 되새기는 시간이었으며, 현장에 참석한 많은 이들이 서로를 축하하고 직역에 대한 자긍심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수상자 명단 기사 하단 참조)

한정환 회장은 “대한방사선사협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방사선사 회원 여러분 덕분”이라며, “지난 60년의 발자취를 바탕으로 이제는 더 큰 책임과 비전을 가지고 100년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 이기에, 앞으로도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의 업무와 권익이 존중 받을 수 있도록 국회, 보건복지부,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유관 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보건 의료 전문가로서 방사선사들의



역할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며, 대한민국 방사선사 한 분 한 분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고 전하며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수상자 명단〉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차상영 회원
- ▲강동성심병원 최용석 회원

보건복지위원장 표창

- ▲경기도회 이유식 회원
- ▲전북특별자치도회 故조석원 회원

사·도회 공로패 시상

- ▲서울특별시회 홍진방 회원
- ▲부산광역시회 강남규 회원
- ▲대구광역시회 이종백 회원
- ▲인천광역시회 김석기 회원

- ▲광주광역시회 정영기 회원
- ▲대전광역시회 이광성 회원
- ▲울산광역시회 이종만 회원
- ▲경기도회 이광현 회원
- ▲강원특별자치도회 전성수 회원
- ▲충청북도회 이순재 회원
- ▲충청남도회 김석태 회원
- ▲전북특별자치도회 이희복 회원
- ▲전라남도회 김영봉 회원
- ▲경상북도회 조복연 회원
- ▲경상남도회 유대인 회원

사무국 우수직원 표창

- ▲대한방사선사협회 전진희 차장
- ▲대한방사선사협회 안다경 과장

# 창립 60주년 기념 '제3회 방사선사의 날' 행사 쌀 화환 기부

## 지역 사회 소외계층 지원 위한 나눔 실천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한정환)는 지난 7월 26일(토) 건국대학교병원 지하 3층 강당에서 창립 60주년 기념 '제3회 방사선사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60년간의 발자취를 회원들과 함께 되돌아보고 미래 100년의 비전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으며, 특별히, 참석자와 유관기관으로부터 축하 화환 대신 쌀 화환으로 받아 60주년의 의미를 담아 나눔을 실천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행사 당일 접수된 쌀 화환은 총160kg으로, 서초구 관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양재2동 주민센터에 기탁했으며, 주민센터를 통해 소외계층 및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전달 될 예정이다.

전달식은 지난 8월 8일(금) 17시 30분 협회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 이 날 전달식에는 한정환 회장을 비롯하여 사업보험부 이준

이사, 양재2동 주민센터 김일남 동장, 강운숙 복지2팀장, 송지윤 주무관이 참석했다.

한정환 회장은 "창립 60주년의 뜻깊은 해에 회원들과 함께한 축하의 자리를 사회적 나눔으로 확장하게 되어 매우 의미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지키는 방사선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양재2동 주민센터 김일남 동장은 "방사선사협회의 창립 60주년을 축하하며,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리며, 전달받은 쌀은 폭염 속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기부는 협회의 사회공헌 활동 일환으로, 향후에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문화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제3회 방사선사의 날' 기념 쌀(160kg) 화환 전달식



# 대한방사선사협회-시니어 TV, 시니어 세대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좌)시니어TV 최성금 사장, (우)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한정환)는 8월 18일(월) (주)시니어TV(사장 최성금)와 건강 및 방사선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건강수명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과 임기선 이사가 참석하였으며,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시니어TV 본사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시니어 방송 활성화를 위한 제반 업무 협조, ▲방사선 및 건강 관련 정보 제공 및 전문가 네트워크 연계, ▲대한방사선사협회의 건강수명 증진 활동 협력, ▲방사선사의 역할 및 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 ▲노인 건강 관련 온-오프라인 사업 추진 등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령층 대상의 건강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방사선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 시켜 나갈 방침이다. 특히, 협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수명 5080 캠페인' 등 주요 사업과 연계하여, 시니어 세대 맞춤형 미디어 콘텐츠 제작도 공동 기획 할 예정이다.

한정환 회장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건강에 대한 정확한 정



한정환 회장 '시니어TV' 유튜브 채널 출연 화면

보 전달과 전문 직역 간 협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서 시니어TV와 함께 국민 건강 증진과 방사선 직역에 대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방사선사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니어 세대의 건강 증진은 물론, 올바른 방사선 장치 사용과 방사선사의 전문적 역할에 대해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협약에 앞서, 한정환 회장은 '한국시니어TV'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방사선사의 역할과 직역의 전문성은 물론, 국민 건강을 위해 방사선사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방사선 의료기술의 현황 및 비전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인터뷰 영상은 대한방사선사협회 공식 홈페이지(www.krta.or.kr)와 한국시니어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협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와의 연계를 통해 국민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고, 방사선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영상 바로 가기

# 대한방사선사협회, 직능단체대표단 간담회 참석

## 방사선사 현안 과제 전달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한정환)는 지난 7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직능단체 대표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를 비롯해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국회 인사들이 참석하였고,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8개 단체장들과 대한약사회, 대한한의학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영양사협회 등 보건 의료단체장 및 기타 직능단체 대표단이 자리를 함께하는 소통의 장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한정환 회장은 방사선(학)과 학제단일화 법제화 추진 요청과 간호법 세부 시행령 제정에 따른 방사선사 업무에 침해가 없도록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해서는 의료기사 등이 제공하는 보건 의료서비스를 추가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현장에서의 현실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관련 법안들의 논의에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박찬대 후보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을 수 있어 현안과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깊은 공감을 하며, 현장에서의 요구

는 곧 정책의 출발점임을 강조하고, 현장의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전하며, 함께 참석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및 교육위원회위원장 역시 해당 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제도 개선 추진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한목소리로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각 보건 의료단체와 정치권의 직접 만나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 의미있는 자리로, 향후 관련 법안과 정책의 추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언하는 (사)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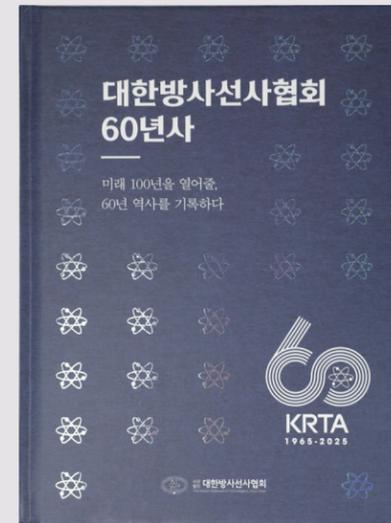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와 직능단체대표단 단체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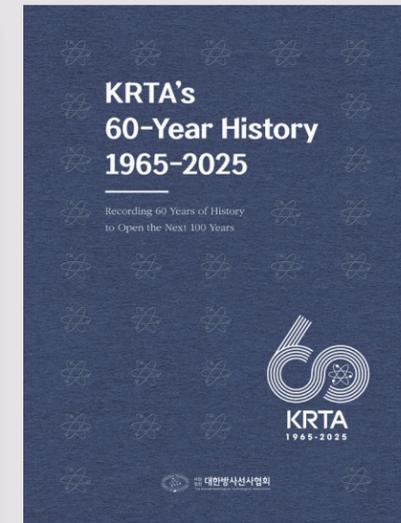
# 창립 60주년 기념, 대한방사선사협회 60년사 발간

## '미래 100년을 열어줄, 60년 역사를 기록하다'

대한방사선사협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협회의 발자취를 집대성한 대한방사선사협회 60년사를 발간했습니다. 협회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방사선사 직역이 걸어온 역사를 세심하게 기록한 공식 자료이며, 앞으로 협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국문판



영문판



### [구성 및 주요 내용]

대한방사선사협회 60년사는 총 4개의 파트로 구성되었습니다.

1. 대한방사선사협회 설립 - 협회 창립 배경과 초기 조직의 형성과정을 상세히 기록
2. 대한방사선사협회가 걸어온 60년 여정 - 직역 발전을 이끈 주요 정책과 활동, 시대별 변화
3. 통계로 남겨진 대한방사선사협회 60년 - 60년간의 성장과 성과를 수치와 자료로 한눈에 조망
4. 역사가 된 대한방사선사협회 60년의 기록들 - 사진과 문헌으로 되짚는 협회의 역사와 기억

### [편찬에 도움을 주신 분들]

이번 60년사 발간에는 기록보존위원회 위원과 임원진이 긴 시간 참여해 방대한 자료를 조사 정리하며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단순한 연혁집을 넘어, 대한방사선사협회의 역사를 담았습니다.

이유식 위원장, 이창엽 소위원장, 임기선 간사, 김건중 위원, 지남준 위원, 신성수 위원, 차상영 위원, 김은성 위원, 조선일 위원, 김계선 위원, 김우진 위원, 김진수 위원, 양민재 위원, 형미진 위원, 서재일 위원, 출판 업체 여울

# 2025년 제22회 1회차 전문방사선사자격시험 및 제10회 1회차 방사선의학물리사자격시험 시행

전국 4개 권역에서 실시 총 642명 응시, 합격률 74%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한정환)는 지난 2025년 8월 24일(일), '제22회 1회차 전문방사선사자격시험 및 제10회 1회차 방사선의학물리사자격시험'을 전국 4개 권역에서 실시했다.

이번 시험은 수도권(신구대학교), 중부권(건양대학교), 영남권(대구보건대학교), 호남권(광주보건대학교) 총 4개 권역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수도권 399명 ▲중부권 59명 ▲영남권 144명 ▲호남권 40명 등 총 642명의 응시자가 시험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453명이 최종 합격하였으며, 전체 합격률은 74%를 기록했다.

대구보건대학교 시험장을 방문한 한정환 회장은 "오늘의 시험을 위해 여러분이 쏟으신 시간과 노력이 반드시 값진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앞으로 여러분이 방사선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해, 국민 건강과 방사선 안전을 책임지는 자랑스러운 전문방사선사로 활약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응시생들을 격려했다.

한편, 일부 시험장에서는 시설 및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 사항들이 응시생들로부터 접수되었으나, 협회는 해당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2회차 시험에서는 보다 쾌적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앞으로도 자격시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현장 중심의 운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22회 2회차 전문방사선사자격시험 및 제10회 2회차 방사선의학물리사 자격시험은 2025년 11월 30일(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 응시원서 접수 기간: 10월 1일(수)~10월 31일(금)



수도권(신구대학교)



영남권(대구보건대학교)



호남권(광주보건대학교)

## 제22회 전문방사선사자격시험 및 제10회 방사선의학물리사 자격시험 시행결과(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통합)

No	응시부문	지원자	결시자	응시자	응시율	합격자	합격율
1	자기공명영상(MRI) 전문방사선사	103	3	100	97	87	87
2	전산화단층촬영(CT) 전문방사선사	80	1	79	99	37	47
3	유방 전문방사선사	46	1	45	98	35	78
4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복부)	164	14	150	91	102	68
5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산부인과)	6	0	6	100	2	33
6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유방)	71	6	65	92	61	94
7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심장)	54	0	54	100	32	59
8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혈관)	5	1	4	80	-	-
9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근골격)	6	0	6	100	5	83
10	투시 전문방사선사	4	1	3	75	3	100
11	영상정보관리 전문방사선사	4	0	4	100	4	100
12	치료 전문방사선사	50	0	50	100	44	88
13	혈관중재 전문방사선사(일반)	18	0	18	100	13	72
14	핵의학 전문방사선사	22	1	21	95	21	100
15	방사선 의학물리사	2	0	2	100	1	50
16	방사선 안전관리 전문방사선사	2	0	2	100	2	100
17	방사선 정도관리 전문방사선사	5	0	5	100	4	80
총계		642	28	614	96	453	74

### 수석 합격자 명단

No	응시부문	성명	근무처
1	자기공명영상(MRI) 전문방사선사	이태현	서울아산병원
		신석훈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	전산화단층촬영(CT) 전문방사선사	권문성	서울대학교병원
3	유방 전문방사선사	조윤수	강동경희대학교병원
4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복부)	김재경	(사)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중진의원
5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산부인과)	이연선	서울아산병원
6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유방)	이미경	부산의료선교회 세계로병원
7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심장)	곽제영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8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근골격)	김수열	전북특별자치도회
9	투시 전문방사선사	김진유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10	영상정보관리 전문방사선사	김영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1	치료 전문방사선사	신윤성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12	혈관중재 전문방사선사(일반)	조장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3	핵의학 전문방사선사	김지용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박현식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4	방사선 안전관리 전문방사선사	윤형균	대구광역시회
15	방사선 정도관리 전문방사선사	김동익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 합격자가 1명인 분야는 수석합격자 발표명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025 대한방사선사 춘계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경상북도회



기념 사진 촬영

(사)대한방사선사협회 경상북도회(회장 김상희)는 2025년 4월 5일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학문으로 하나되는 방사선사! 학술교류의 중심 GBRTA!” 라는 슬로건으로 2025 대한방사선사 춘계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학술대회를 주관한 대한방사선사협회 경상북도회 김상희 회장은 “방사선학 분야의 최신 연구와 기술동향, 그리고 회원들의 연구자료와 지식을 공유하는 학술대회이며, 아울러 방사선학의 학

문적인 발전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보건의료전문가로서 책임의식을 높이고 협회의 결속도 더욱 공고히 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라고 모든 참석자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외 회원과 방사선(학)과 재학생, 협력사 등 1,300여명이 대면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방사선사의 자질 향상과 방사선기술학 연구, 미래지향적인 협회 발전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고, 더 나아가 방사선사의 화합과 권익향상에

기여하고자 참가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되었다.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 대한방사선사 춘계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는 100여편의 논문 및 포스터 발표, 최신 의료장비 부스운영 및 인공지능 솔루션에 대한 런칭심포지엄, 회원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국제학술대회로서 일본, 베트남, 대만 등 국제회원들이 참석하여 전 세계 방사선사들이 하나되는 학술교류의 장으로 성황리에 종료 되었다.

**최우수 슬로건상**

서윤종(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최우수 논문상**

신민철(분당서울대학교병원)

**우수 논문상**

류찬주(백석문화대학교), 백인서(삼성서울병원), 손찬희(동국대학교 경주병원)

**구연 논문상**

김동현(대구보건대학교), 김은혜(한서대학교), 이강민(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위현정(계명대학교 동산병원)

**포스터 최우수상**

장현철(수성대학교)

**포스터 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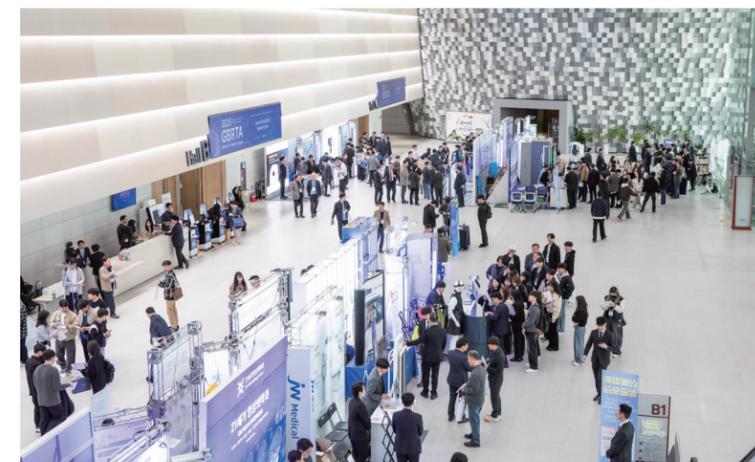
김승현(건양대학교), 김동환(동남원자력의학원)

“  
학문으로 하나되는 방사선사!  
학술교류의 중심 GBRTA!  
”

## 환영사



대한방사선사협회 경상북도회 김상희 회장의 환영사



접수처와 전시 부스 그리고 학술대회 현장을 찾아 준 많은 회원들



2025 대한방사선사 춘계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개막을 알리는 커팅식

서울특별시회

2025년도 일본 관동지역 국제 학술대회 참가  
서울특별시회, 2025 Kanto-Koshinetsu Clinical  
Radiology Technologist Conference 참가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박성모)는 지난 7월 3일(목)부터 6일(일)까지 일본 요코하마시 PACIFICO Yokohama Convention Center(요코하마 국제평화회의장)에서 열린 '2025 Kanto-Koshinetsu Clinical Radiology Technologist Conference(2025년 관동-고시네츠 지방 임상 방사선 기술자 학술대회)'에 대표단 18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다각학 의학과의 공창: 개항의 땅에서 미래로의 연결」로, 타지마 타카토 회장은 “방사선 기술자가 다각화되는 의료의 요구에 부응하고,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한층 더 진화하는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라며, 새로운 도전과 수용의 자세를 강조하였다. 특히 '개항의 땅'이라는 부제를 통해 미래로 향하는 학문적·임상적 교류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아시아 각국의 방사선사와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이번 학술대회는 최신 방사선 기술과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서울특별시 방사선사회 역시 학술 발표와 공식 교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의 이병학 회원은 「Evaluation of the

usefulness of the Modify exam using the Tube angle during the Rib cage oblique exam」이라는 주제로, 서울아산병원의 박종운 회원은 「Assessment of CBCT usefulness during TACE: A Study Using Machine Learning and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XAI)」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회 참가를 통해 서울특별시 방사선사회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한층 더 확장하고, 국내 방사선사들의 우수한 학술 역량을 세계무대에 널리 알릴 수 있었다. 또한 학문적 성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해 국제 방사선 학계와의 신뢰를 두텁게 하였으며, 향후 공동 연구와 학술 교류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서울특별시회는 앞으로도 국제적 협력을 기반으로 회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학문적 위상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의 날 '영화로의 초대' 행사 성료

7월 11일,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회원 및 가족 175명 참여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박성모)는 지난 7월 11일(금) 오후 6시 30분, CGV 용산아이파크몰 13관에서 문화의 날 행사 '영화로의 초대'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회원 및 가족이 함께 여가를 즐기며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자 기획되었다.

이날 상영작은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이었으며, 서울특별시회 임원 11명, 회원 87명, 동반인 77명 등 총 175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박성모 회장은 상영 직전 인사말을 통해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 주신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며 “앞으로도 문화·여가 복지 행사를 통해 회원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서울특별시 방사선사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회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 복지를 실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향후에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방사선사 회원을 위한 건강 상생 협약식

서울특별시 방사선사회, (주)센트디아와 건강 상생 협약 체결

서울특별시 방사선사회(회장 박성모)는 지난 7월 25일(금) 건국대학교병원 B3 강의실에서 (주)센트디아와 '방사선사 회원을 위한 건강 상생 협약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협약은 서울특별시회 소속 회원들이 보다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양 기관이 함께 건강 상생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구강 및 건강관리를 위한 제품을 회



원들에게 특별가로 공급 △건강 습관 형성을 위한 콘텐츠 및 참여형 프로그램 공동 기획 △향후 공동 건강 캠페인, 콘텐츠, 기부, 마케팅 활동 등 다양한 상생 모델을 추진하는 것 등이다. (주)센트디아는 이미 지난 3월 22일 열린 '2025년도 KIMES & 서울특별시 방사선사회 제59차 국제 학술대회'에서 자사 제품인 마우스워시를 기념품으로 제공하며 회원들과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센트디아의 마우스워시 브랜드 '센트디아(ScentDIAH)'는 꽃과 풀의 건강한 향기를 담은 저자극 제품으로, 대표 제품으로는 '디아홍차민트향'과 '디아알로에향' 등이 있다.

서울특별시 방사선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들의 건강 복지 향상과 건강한 생활 실천을 위한 협력 강화 및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풍요로운 회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센트디아

서울특별시 방사선사회, 명륜안경·콘택트와 건강 상생 협약 체결

서울특별시 방사선사회(회장 박성모)는 지난 7월 28일(월) 종로구 명륜안경·콘택트(종로구 명륜2가 198-1)에서 회원 복지 향상을 위한 '방사선사 회원을 위한 건강 상생 협약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협약은 서울특별시회 소속 회원과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양 기관은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협약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혜택으로는 △신제품 안경테 20% 할인 △신제품



안경알 20% 할인 △그 외 제품은 재량에 따라 추가 할인 제공 등이 포함되며, 대상자는 전년도까지 연회비를 완납한 서울특별시회 회원 및 가족이다.

박성모 회장은 협약 소감을 통해 “이번 협약은 회원분들과 가족들에게 작지만 실질적인 생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회원 복지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서울특별시 방사선사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회원 복지 확대에 한 걸음 더 다가섰으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명륜안경원

인천광역시회

심장초음파 심화과정 스캔반 수료식

지난 2025년 6월 3일부터 6월 19일까지 심장초음파 심화과정 스캔반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총 6회로 구성되었으며, 이지혜 강사의 지도 아래 3명의 수강생이 참여하여 실습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교육 과정은 심장초음파의 기본적인 스캔 절단면을 이해하고 실제 프로브 운용을 통해 영상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Parasternal long axis view, apical 4 chamber view,



subcostal view 등 주요 시야에 대한 반복 훈련이 이루어졌다. 각 수강생은 직접 기기를 다루며 환자 검사 상황을 모의 실습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실제 임상에서 필요한 기본 술기를 보다 정확하게 체득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또한 강사는 이론적인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검사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교정 방법을 함께 지도하여 실무적 완성도를 높였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수강생들은 정해진 일정에 성실히 참여하였으며,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심장초음파의 이해를 심화하고 수강생들이 임상 현장에서 자신감을 갖고 환자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며, 교육 전 과정을 마친 수강생들의 성취가 강조되며 마무리되었다.

2030 소통위원회 회의

지난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19시, 대한방사선사협회 인천광역시회 회관에서 2030소통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는 박종창 회장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인 ‘2030 소통위원회’ 구성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젊은 세대 회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협회의 방향성과 활동에 활력을 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2030 소통위원회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20~30대 방사선사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세대 간의 간극을 줄이고 실질적인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이덕치



과, 서울정형외과신경과 및 병무청에서 근무 중인 2030 회원들이 참석하였으며, 회의는 대한방사선사협회 인천광역시회의 주요 활동과 역할에 대한 소개 및 향후 추진 방향 설명으로 시작되었다. 이어 협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평소 현장에서 느꼈던 생각들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이 마련되어 진솔한 대화가 이어졌다. 협회 운영에 바라는 점, 업무 현장에서 마주하는 어려움, 그리고 젊은 세대가 체감하는 조직문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며, 현실적인 제안과 참신한 시각들이 더해져 협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각도의 인사이트를 얻는 계기가 되었다.

제11회 후쿠오카현 진료 방사선 기사회 학술대회(FART) 참석

대한방사선사협회 인천광역시회는 후쿠오카 방사선기사회와 오랜 기간 학술 및 인적 교류를 이어오며 양 단체 간의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지난 미추홀 국제 학술대회에서는 후쿠오카 방사선기사회 회원 두 명이 직접 참석하여 발표를 진행하는 등 상호 교류의 장이 마련되었으며,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천광역시회는 제11회 후쿠오카현 진료 방사선 기사회 학술대회에 초청을 받아 참석하였다. 학술대회의 개최식에서는 박종창 회장이 일본어로 축사를 진행하여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축사에서는 양 단체 간의 오랜 신뢰와 우정을 되새기고 향후 학문적 발전과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지는 교류의 중요성이 강조



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미추홀 국제 학술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이왕희, 조규상, 송채현 회원이 발표자로 참석하였다. 이왕희 회원은 ‘Evaluation of Background Radiation Measurement Sites in Calculating Thyroid Uptake Using 99mTc-Pertechnetate’를 주제로 발표하였고, 조규상 회원은 ‘Comparison of Storage Durations Based on Self-Disposal Permissible Concentration Calculation Methods for Coating Tubes Generated during in-Vitro Nuclear Medicine Tests’를, 송채현 회원은 ‘Evaluating the Clinical Use of Triangulation with Breast Phantoms’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세 발표자는 낮은 환경에서도 영어로 차분하고 명확하게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완성도 높은 자료와 전문성 있는 설명으로 현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통역은 임세원 학술부장이 동행하여 행사 전반에 걸쳐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였고, 발표 및 교류가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세심히 조율하였다. 학술대회 종료 후에는 박종창 회장과 후쿠오카 방사선기사회 임원진 간의 간담회가 이어졌으며, 양국 발표 교류 활성화 방안과 방사선 저감화라는 공동 관심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향후 협력의 가능성을 구체화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방사선사 간의 학문적 연대와 신뢰가 한층 더 강화되었으며, 국제적 교류의 의미와 성과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대구광역시회

‘제22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구광역시회 학술대회’ 성황리에 개최

대구광역시회(회장 김청모)는 지난 6월 21일 대구 EXCO에서 ‘제22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구광역시회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청모 회장을 비롯한 21명의 임원들과 490여명의 대구광역시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하며 대구광역시회는 수차례 회의를 거쳐



회원들에게 보다 알차고 편리한 학술 발표의 장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학술대회는 세 개의 세미나장에서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어 회원들이 관심사에 따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세미나1에서는 특강과 회원 논문 발표가, 세미나2에서는 초음파 핸즈온 라이브가 열렸으며, 세미나3에서는 재학생 논문 발표와 CT, MRI, 치료방사선 전문학회의 세션이 이어졌다.

또한, 메디엑스포와 함께 열린 전시장에는 350개 기업이 참여해 720부스 규모로 운영되며, 회원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미래로 향하는 방사선, 함께 나아가는 DRTA’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AI 기반 의료산업 발전을 주제로 한 다양한 논문이 발표됐다. 특히 대구파티마병원 곽동섭 회원의 「AI 기반 비조영 Brain CT 분석을 통한 급성 뇌경색 조기 진단 가능성 평가」 논문은 최우수 학술 구연상을 수상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

김청모 대구광역시회 회장은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회원들의 관심과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대구광역시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유방초음파 전문화 교육 시행**

지난 7월 26일 개강한 유방초음파 전문화 교육이 대구보건대학교 지방연수원에서 5주간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선착순 24명 모집에 신청 시작 이틀 만에 마감될 정도로 회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이뤄졌다.

교육 활성화를 위해 개강식에는 장동석 대구광역시회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임원 12명이 참석해 회원들을 격려했으며, 수료식에는 김청모 대구광역시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 11명이 자리해 수료생들을 축하했다.

교육은 이미화 대구광역시회 교육이사과 정효은 회원이 강사로 봉사하며 실습 위주의 실용적인 강의로 진행됐다.

김청모 회장은 수료식에서 “매 회차마다 회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맞춰 교육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매년 훌륭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화 교육이사는 “지난 과정을 세밀하게 되짚어 보다 나은 교육을 준비하겠다”며 “무더운 여름에도 끝까지 함께해 준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문화의 날’ 행사로 야구 경기 관람**

대구광역시회(회장 김청모)는 지난 8월 14일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에서 대구광역시회 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최근 프로 야구 시즌 개막으로 특별히 단체 야구 관람을 준비했다.

이날 행사는 150석 선착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신청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회원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진행되었다.

이날 경기는 삼성라이온즈의 대구(달구벌), 기아타이거즈의 광주(빛고을)의 지명을 딴 달빛 시리즈로 볼 빨간 사춘기의 시구와



특별 공연과 함께 양 팀 응원단의 합동 응원전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되었다.

김청모 회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회원들을 위해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회원들과 함께 즐겁게 야구를 관람할 수 있어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문화의 날 행사에는 부부 회원과 자녀들이 함께 참여해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었으며, 참석한 회원들 모두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는 후문이다.

**부산광역시회**

**2025년 제2차 온라인 보수교육 성료**

지난 6월 28일(토) 부산광역시회(회장 윤주호)는 14시부터 18시까지 ZOOM을 활용해 2025년 제2차 온라인 보수교육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실시간 온라인 강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499명이 접수한 가운데 487명의 회원이 교육을 이수했다. 교육은 총 4교시로 구성되어, 임상 실무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가 강연이 이어졌다.

- 1교시:** 서경두 교수 (부산대학교병원)-“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간세포암 치료”
- 2교시:** 진성욱 강사 (바이엘코리아㈜)-“M조영제의 안전한 사용법”



**3교시:** 이현경 원장 (장팔팔내과의원)-“심전도의 기본 이해”

**4교시:** 김진의 교수 (서울대학교병원)-“핵의학용 이용한 치료와 이해”

특히 방사선사의 현장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치료 및 영상의학 기반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교육의 전 과정은 부산시방사선사회 임원진의 노련한 진행 아래 원활하게 운영되었다.

협회 관계자는 “회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자격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수교육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획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교육 방식의 장점을 살려 지역적 제약 없이 더 많은 회원들이 양질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의료기사연합회와 함께 야구 단체 관람 행사 진행**

대한방사선사협회 부산시회는 지난 2025년 7월 31일(목),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부산광역시 의료기사연합회와 함께 야구 단체 관람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 부산시회 회원들을 포함한 여러 의료기사 직역 종사자들이 참석해, 경기 관람은 물론 치맥을 함께 즐기며 응원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의료기사 직역 간 유대감을 높이고, 회원들이 일상



속에서 짧은 침표를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로, 오랜만에 함께 모인 회원들 간의 웃음과 응원으로 현장은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부산시회 관계자는 “회원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직역 간 연대의식을 다질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친목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경상북도회**

**대한방사선사협회 경상북도회,  
안동 산불 피해 복구에 500만원 기부**

대한방사선사협회 경상북도회(회장 김상희)가 지난 6월 19일 안동시청을 찾아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거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해 2025년 4월 5일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 대한방사선사 춘계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에 기부함을 마련하여 참가회원에 의한 따뜻한 손길로 마음을 모았다.

김상희 회장은 “이번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동 시민들



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경상북도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어려움을 나누고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신 대한방사선사협회 경상북도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기부해주신 성금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소중하게 전달하고, 피해 지역 복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경상북도회는 이번 기부 외에도 평소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번 성금은 피해 주민들의 긴급 생활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전라남도회**

**2025년 제 2회 전라남도 방사선사 종합학술대회  
“생명의 빛으로 건강한 전남을 만드는 방사선사”**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전라남도회에서 주관한 「2025년 제 2회 전라남도 방사선사 종합학술대회」가 2025년 06월 14일 국립 순천대학교 70주년기념관 '우석홀'에서 전라남도회 문철홍 회장

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본 학술대회는 전라남도회 방사선사와 전남 지역 2개 대학교 방사선(학)과 재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오프라인 중심의 학술대회로, 개회사를 시작으로 폐회식까지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총 회원 연제 발표 5편, 재학생 연제 발표 6편, 포스터 발표 10편, 특강 4강으로 구성된 본 학술대회에는 약 300여 명의 회원 및 외부인이 참석하였다.

학술대회를 축하하기 위하여 외부으로는 전라남도 순천시 심기섭 보건소장을 비롯하여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장지필 부회장, 최정욱 부회장, 서울특별시회 박성모 회장, 인천광역시회 박종창, 대구광역시회 김청모 회장, 대전광역시회 박희왕 회장, 부산광역시회 윤주호 회장, 울산광역시회 이준환 회장, 광주광역시회 신성진 회장, 경기도회 차종호 회장, 충청북도회 정원희 회장, 충청남도회 임청환 회장, 강원특별자치도회 이홍규 회장, 전북특별자치도회 유진오 회장, 경상북도회 김상희 회장, 경상남도회 정봉재 회장 등 협회 본부 및 전국 시도회 임원진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우수한 발표자 및 포스터 참여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상이 이루어졌다.

**회원 부문**

- 최우수 구연상 : 정제민 회원(성가롤로병원)
- 우수 구연상 : 김충명 회원(화순전남대학교병원), 이승규 회원(청년·청소년 노동권익센터)

**재학생 부문**

- 최우수 구연상 : 장백산 학생(광주보건대학교)
- 우수 구연상 : 박강일 학생(동신대학교), 권유나 학생(동신대학교)

**포스터 부문**

- 최우수 포스터상 : 홍승완 학생(광주보건대학교)
- 우수 포스터상 : 남상진 학생(동신대학교), 김영재 학생(광주보건대학교)

**기타 시상**

- 최우수 슬로건상 : 박민근 회원(성가롤로병원)
- 대한방사선사협회장 표창 : 남상균 회원(성가롤로병원)
- 전라남도회장 표창 : 이현주 회원(목포의료원)

폐회식에서 문철홍 전라남도회 회장은 “지난해 ‘세상을 바꾸는 작은 빛’이라는 슬로건 아래 첫걸음을 내딛고, 올해는 ‘생명의 빛으로 건강한 전남을 만드는 방사선사’라는 비전 아래 학문적 성장을 함께 나눌 수 있어 뜻깊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번 학술대회는 방사선 분야의 최신 지견과 실무지식을 공유하고,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통찰을 나누는 시간이었다”며 “전남도회는 앞으로도 회원 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단결된 힘을 만들고, 지켜야 할 가치를 함께 외쳐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회장은 학술대회에 참여한 모든 회원과 행사진행에 헌신한 임원진 및 의전팀에 감사를 전하며, 이번 학술대회가 전라남도 방사선사의 연대와 성장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며 「2025년 제2회 전라남도 방사선사 종합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 의료기관 MRI 안전교육 동영상 제작...환자안전 강화 기대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회장 김준규)가 국내 최초로 '레벨 1 MRI 안전교육' 동영상을 제작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 중원 중앙환자안전센터로부터 공식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번 동영상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을 통해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되어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교육 자료는 학회 안전관리부가 2년여에 걸쳐 추진한 핵심 프로젝트의 결실로, 대한영상의학회의 감수와 중앙환자안전센터의 검증을 거쳐 공신력을 확보했다. 강한 자기장이 상시 작동하는 MRI 검사실의 특수성을 고려, 작은 부주의가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동영상에는 ▲MRI 장치의 기본 개념 ▲주요 위험 요소 및 사고 예방 수칙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안전 지침 등 MRI 환경에 출입하는 의료진, 시설 관리 담당자 등 다양한 직종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가 담겨 있다. 김준규 회장은 이번 성과에 대해 "공공기관 및 전문 의사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얻어낸 결과"라며 강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는 "3년간 성공적으로 진행해 온 MRI 안전관리 연수강좌

의 경험과 노하우가 집약된 동영상인 만큼, 의료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회 측은 이번 교육 영상이 의료기관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환자 안전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MRI 환경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속할 계획임을 전했다.

이번 교육 동영상은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 공식 유튜브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MCvVL26UwiM>) 과 환자안전보고시스템(KOP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초음파의료영상학회

대한초음파의료영상학회, 제3차 보수교육 광주에서 열려

대한초음파의료영상학회 광주지회가 주관한 2025년도 제3차 보수교육이 지난 6월 28일(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광주보건대학교 베드로관 4층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교육은 구혜정 학회장의 인사말과 임원진 소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강의에 돌입했으며, 총 2교시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1교시에는 곽종길 교수(광주보건대학교)가 '상복부초음파 검사의 기초 이론'을 강의했고, 2교시에는 권화자 강사(한국의학연구소) 외 4인의 강사진이 회원들이 직접 스캔에 참여하는 Hands-on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전체 행사는 기념군 광주지회장의 사회로 원활히 진행되었으며, 이론 교육과 더불어 실제 초음파 장비를 활용한 실습까지 더해져 실질적이고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번 보수교육은 실무 능력 향상은 물론, 초음파 분야의 학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기회가 되었다.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급변하는 의료시대의 혁신방안을 위한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2025 하계워크숍 성료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는 지난 7월 4일(금)부터 5일(토)까지 1박 2일간 문경 서울대학교 인재원에서 2025년 하계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의료시대의 혁신방안을 위한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의 미래 그리고 의료제도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사선사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회원들 간의 학술적 토의와 의료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또한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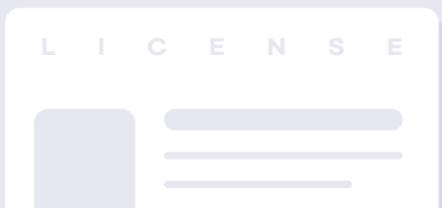
원들의 1년간의 대소사(大小事)를 허심탄회하게 되돌아보는 열띤 토론의 장도 펼쳐졌다.

이번 하계 워크숍에서의 주요 쟁점은 나날이 발전하는 의료분야의 인공지능(AI)이 디지털 영상의학 분야의 기반을 둔 디지털 의료영상 진단분야와의 융합 필요성에 관해 열띤 대화를 통한 심도 있게 토론하였다. 토론의 결론은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가 미래의 도약을 위해서는 디지털의료영상과 인공지능과의 융합 과학 연구가 필수적이라 목표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는 편협한 지식이 아닌 디지털 의료영상 분야를 넘어서 방사선 과학 융합 연구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 하였다. 더 나아가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가 미래의 의료변화의 대처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의료와 보건시대의 영상데이터 표준화 및 빅데이터 활용분야의 연구에도 중점을 두어야 미래의 방사선사의 업무와 혁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이라는 구체적인 제시안도 논의 되었다.

이번 하계워크숍은 단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서 방사선사가 급변하는 의료혁신 시대의 디지털 의료영상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는 앞으로도 학술 연구와 교육 활동을 지속적 강화를 통하여 디지털 의료 환경의 변화 속에서 더욱 더 내실을 다져 의료영상 분야의 전문성과 위상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전문방사선사 자격증 갱신 안내



## 전문방사선사 자격증의 갱신 기본 요건

전문방사선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자로서 5년마다 자격증을 갱신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갱신하지 못한 경우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며,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증 갱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공통 요건 : 협회 학술대회 또는 해당분야 자격유지를 위한 연수교육을 연 2시간 이상 이수**

1. 자격취득 5년 이내 : 10시간 이상 이수
2. 자격취득 5년 초과 ~ 10년 이하 : 12시간 이상 이수
3. 자격취득 10년 초과 : 16시간 이상 이수

### 이수시간 인정 범위

해당 분야 전문학회 보수교육 및 대한방사선사학술대회(추계학술대회)에 참가시, 보수교육 이수 시간과 관계없이 참여한 교육 당 자격 유지 시간으로 2시간이 인정

### 신청 방법

전문방사선사시험원 홈페이지 가능

### 수수료

10,000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건강한 소통

KRTA와 함께하는 공감 콘텐츠

## Essay \_ 34

함께 흐르되, 서로를 잃지 않는 길 위에서

## Review \_ 36

몽골방사선사협회 첫 국제학술대회 'MCR 2025' 참석

## Review \_ 38

마카오에서의 특별한 경험\_제25회 마카오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를 다녀와서

## Interview \_ 40

방사선사에서 인증조사위원까지, 환자 안전을 향한 발걸음

## Study \_ 42

시드니 거리에서 시작된 글로벌 챌린지

## Webtoon \_ 44

숨 참으세요

# WITH KRTA

# 함께 흐르되, 서로를 잃지 않는 길 위에서

글 양한준(전, 을지대학교 교수)

변화의 파도는 늘 우리 발목을 적시지만, 결국 정신을 적시는 것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기원전 6세기, 고대 그리스의 자연·형이상학 철학자)”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했지요.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흐름을 통해 “존재란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을 전한 이 경구는, 필름을 현상하던 시절의 암실에도 묵직한 메아리로 남았습니다. 현상액에 잠긴 흑백 이미지 한 장에도 환자화 제 삶의 문맥이 나란히 스며 있었으니까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제 인공지능(AI)으로 이어진 변화의 물결은 기술을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배운 “방사선=인간의 해석”이라는 오랜 공식을 결코 버릴 수 없었습니다. 선명한 화소가 질병을 가리켜도, 그 그림자에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더하는 일은 결국 사람의 몫이니까요.

## 1. 필름의 슬로우 모먼트, 인간 감성의 원형

아날로그 시절, 암실에서 느꼈던 기억 중에 우리는 필름 카세트에 스며든 붉은 빛을 보며 이미 ‘시간’을 읽어냈습니다. 현상기가 내는 소리와 흔들림에서 ‘적막한 30초(내가 찍은 필름을 현상하려고 암실에서 작업 중 필름이 현상액 속에 전부 담가지는 시간)’는 의학적 추론이 시작되는 의례(儀禮)였죠. 그 시간이 주는 느낌은 ‘촬영·판독·사고(思考)’가 하나의 리듬으로 이어지게 했고, 환자에게 향한 공감과 책임을 정제했습니다. 손끝에서 미세하게 떨리던 필름의 무게감, 그리고 환자의 안색·숨결·눈빛까지 기억하려 애쓰던 그 감각적 총합이야말로 방사선사의 뿌리였습니다.

## 2. 초연결·초속도의 시대, 놓치기 쉬운 ‘사람 냄새’

AI가 등장한 오늘날, CT 한 장은 0.1초 만에 분할되고, 패턴은 즉시 색인 됩니다. 데이터 라인은 병원 서버와 클라우드를 넘어 가정용 헬스 디바이스까지 확장되었죠. 덕분에 우리는 재현성·정확

성·변별 탐지율에서 전례 없는 진전을 맞습니다. 그러나 속도는 경험의 깊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동화된 리포트만으로는 환자가 짊어진 불안과 삶의 맥락, 치료 과정에서 직면할 감정적 파노라마를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인간적 감성은 필수불가결한 ‘결핍 보완 장치’가 됩니다.

## 3. 가다머가 말한 “해석의 대화”

‘한스-게오르크 가다머(1900~2002, 독일의 대표적 해석학 철학자)’는 “이해란 언제나 해석자 자신을 열어젖히는 일”이라 했습니다. 요약하면 우리는 대상을 해석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재해석합니다. 시가 내놓은 통계, 흑백의 묘한 지도(그레이스케일), 위험 점수... 이 모든 ‘제안’은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기계를 절대시하면 방사선사의 존재 증명은 취약해집니다. 반대로, 기계와 대화하며 자기 성찰을 반복할 때 우리의 직무는 깊이를 얻습니다.

## 4. 감각·직관·공감: 세 갈래 뿌리

**감각:** 촬영 전, 환자가 내뿜는 한숨의 길이·힘·주기를 감지하십시오.

**직관:** 이미지는 정적이지만, 몸은 동적입니다. “이상하다”는 번뜩임이 AI보다 빨리 생명을 살립니다.

**공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환자는 자신을 ‘낯선 기계에 내맡긴 존재’로 느낍니다. 검사의 의미·다음 단계·기대치를 설명하며 ‘심리적 방호벽’을 세워 줘야 합니다. 이때 따뜻한 눈 맞춤과 부드러운 목소리는 약물 못지않은 치유가 됩니다.

## 5. 기술이 넓혀 준 운동장, 정체성의 재설계

AI는 대용량 시뮬레이션으로 희귀 질환 알고리즘을 학습하고,

일상 검진 데이터를 실시간 피드백해 방사선사의 관찰 범위를 병원 밖으로 확장합니다. 그러나 기술만으로는 책임·윤리·신뢰의 무게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지 해석자’를 넘어 ‘의료 스토리텔러·디지털 윤리 설계자’로 올라서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다움은 사치가 아닌 직무 능력의 핵심 역량이 됩니다.

## 6. 감성 근육을 단련하는 다섯 가지 기본

- **느린 관찰:** 매일 한 장의 이미지를 5분간 묵상하며 임상·예술·철학적 질문을 던질 것.
- **메타 커뮤니케이션:** 환자에게 단순 설명 대신 “지금 어떤 기분이신가요?”를 물으며 감정 어휘를 확장할 것.
- **다학제 독서:** 영상의학·AI 논문과 함께 문학·미학·신경윤리 서적을 병행할 것.
- **몸 감각 유지:** 장시간 모니터 앞 자세가 감정을 무디게 함을 기억하고, 숨쉬기 명상·스트레칭·운동으로 감각을 깨울 것.
- **피드백 일기:** 하루 한 번, 자신이 해낸 말·표정·행동이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서술적 기록을 남길 것.

## 7. 후배에게 띄우는 다섯 문장

- 기술을 두려워하지 말되, 절대시하지 마라.
- 데이터 뒤편의 삶의 자리를 읽어라.
- 소통과 윤리가 무너지면 정확도 99%도 무의미하다.
- 속도가 절반이라면 깊이는 나머지 절반이다.
- “나는 기계를 넘어 사람의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매일 선언하라.

## 8. 結語—파도 위의 배려

필름 한 장, 픽셀 한 점, 검사 영상 한 프레임, 텍스트 한 줄을 넘어 환자의 서사를 긍정하는 이들이라면 변화의 파도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기계가 빛어 준 속도 위에 사람이 더하는 공감이 포개질 때, 의료는 기술 이상의 서사가 됩니다. 저는 그 파도의 끝, 조금 앞선 자리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흐르되, 서로를 잃지 않는 길 위에서. 2025.7.19. 📍



# 몽골방사선사협회 첫 국제학술대회 'MCR 2025' 참석

글 홍민지(삼성서울병원)



지난 6월 18일(수)부터 21일(토)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방사선사협회(Mongolian Society of Radiologic Technologists, MSRT)의 제1회 국제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몽골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몽골방사선의학회(Mongolian Society of Radiology, MSR)와 연합하여 창립 30년 기념을 겸한 학술대회(MCR 2025)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방사선사협회 김건중, 이용문 전임 회장과 충청남도회 임청환 회장, 대한방사선치료학회 백금문 회장을 포함한 한국 참가단 18명이 참가하였으며, 양국 간의 학술

교류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6월 21일(토) 오전, 백금문 회장과 참석자들은 울란바토르 내 Brilliant Hospital과 National Cancer Center를 방문하여 몽골의 영상의학 및 방사선종양학 관련 병원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과 몽골 간의 병원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이번 병원 방문은 양국 간의 실질적인 의료 협력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학술대회에는 몽골을 비롯해 한국, 러시아 등 여러 국가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으며, 이용문 전임 회장의 축하 인사말에 이어



김건중 전임 회장이 몽골 협회장과 같이 좌장을 맡아 학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행사장 내에는 10개 이상의 협력업체가 부스를 설치하여 첨단 영상장비를 소개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학술 프로그램은 김건중, 조복연, 백금문, 김창호, 정호영 회원님의 Education Lecture를 비롯해 총 4편의 회원 논문 발표(삼성서울병원 주영철, 홍민지, 한서대학교 김은혜, 백석문화대학교 류찬주, 그리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곽종혁, 유장선, 임영현, 길상형 회원님의 E-poster 발표 4편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각국의 구연 발표 세션을 통해 방사선학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과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학술대회 이후에는 몽골방사선사협회 바트소가르(Batsugar) 회장 및 임원진과의 간담회가 열려, 국제 협력 방안과 지속적인 교류 방식을 논의하고 대표자 간 선물 교환식을 통해 우의를 다졌다.

이와 더불어, 대한유방기술학회 주영철 학술이사와 홍민지 교육 부장은 몽골유방방사선기술학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별도 미팅을 진행하였다. 양측은 오는 11월 29일(토) 개최 예정인 대한유방기술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몽골 임원진을 대상으로 한 교육 강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며 실질적인 교육 협력의 첫 단계를 마련하였다. 이번 MCR 2025는 한국과 몽골 방사선사 간의 유대와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상호 전문성을 증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방사선 분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

학술 프로그램의 좌장을 맡은 대한방사선사협회 김건중 전임 회장





# 마카오에서의 특별한 경험

## 제25회 마카오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를 다녀와서

청주대학교 4학년 김나희입니다.

저는 9월 6일, 제25회 마카오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  
(The 2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Macao Radiological Technologists' Association)에  
참석하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학회 발표라는 큰 과제를 앞두고 기대와 설렘,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마카오로 향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글 김나희(청주대학교)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마카오의 이국적인 풍경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을 앞둔 긴장감을 잠시 잊게 해주었습니다. 대회장에 들어서자 세계 각국에서 모인 방사선사들이 방사선 분야의 최신 기술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학생의 신분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발표한 주제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호흡동기 방사선치료 보조장치 개발이었습니다. 방사선치료에서 호흡의 일관성은 치료 정확도에 큰 영향을 주지만, 청각이나 시각에 제한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기존의 안내 방식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보조장치를 구상하고, 그 가능성을 학문적으로 공유하는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발표 직전까지 자료를 다듬고 발표 연습을 수차례 반복했지만, 막상 단상에 서니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작은 실수가 있어 초대 해주신 성의에 부응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었다는 자체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다음에는 더 잘해 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학회 일정이 끝난 후, 짧게나마 마카오를 둘러볼 기회도 있었습

니다. 화려한 건축물과 유럽과 아시아 문화가 어우러진 거리 풍경은 제게 잊지 못할 인상을 남겼습니다. 여행지의 아름다움도 특별했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은 전 세계 방사선 전문가들과 함께 학문적 교류를 나눈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발표 경험은 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을 뿐 아니라, 방사선사로서의 진로와 사명감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환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또 제가 앞으로 어떤 연구자로 성장하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며 '오늘의 떨림과 배움을 잊지 않고, 더 깊이 있는 연구자로 성장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졸업 후 방사선사가 되어 또 한번 이런 자리에 초대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저는 환자 중심의 치료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연구와 학문적 성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학회 발표는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제 인생의 의미 있는 순간이 되었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든든한 교훈을 많이 얻었습니다. 세계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K

## 방사선사에서 인증조사위원까지, 환자 안전을 향한 발걸음



방사선사 최초,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의 인증조사위원이 된 문현상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영상의학팀 파트장을 인터뷰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의 조사위원으로 지원하게 된 동기, 방사선사 최초 인증조사위원이 된 소감 등을 물었다.

문현상(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영상의학팀 파트장)

### — Q 영상의학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A → 저는 현재 영상의학과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상의학팀의 질 향상(QI) 활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영상 검사를 수행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환자 안전과 질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영상의학 검사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 — Q 의료기관 인증평가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A → 초기 인증제도가 시작될 때부터 인증평가에 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인증평가의 취지 자체가 환자 안전과 질 향상에 있다는 점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병원 내에서 수동 제세동기로 CPR 시연에 직접 참여하거나, 3주기 평가부터는 영상의

학팀 인증 준비를 주도적으로 맡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저를 인증평가와 더 가깝게 연결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 — Q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의 조사위원으로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A → 처음 모집공고를 접했을 때는 “인증평가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갖추면 우리 병원이 인증을 받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생각이 계기였습니다. 첫 도전에서는 아쉽게 탈락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준비하여 2024년에 합격했고, 교육과 별도의 시험을 거쳐 공식 인증조사위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깨달은 것은, 제가 쌓아온 경험과 역량이 평가 현장에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는 점이었고, 실제로 조사위

원으로 활동하는 일이 제 적성과도 잘 맞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사위원이 되는 과정 자체가 저를 한층 성장시키고, 방사선사로서 새로운 시야를 열어준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 — Q 방사선사 최초 인증조사위원이 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A → 방사선사로서 최초로 인증조사위원이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조사위원의 역할은 단순히 평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 기준에 미흡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점수를 부여하고, 동시에 개선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동반자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방사선사도 인증조사위원으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마중물이 되고 싶습니다. 비록 지금은 저 한 사람의 출발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방사선사가 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방사선사의 위상은 물론 영상 검사 분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환자 안전과 질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 — Q 마지막으로 회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A → 저의 경험이 보여주듯, 방사선사도 충분히 인증조사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도전한다면, 개인의 역량을 키우고 전문성을 확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동료 방사선사가 인증조사위원으로 함께 활동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K

#### 문현상 선생님은?

-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영상의학팀 파트장
- 한국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인증조사위원
- 가천대 보건대학원 재학 중

#### 주요 경력

- 1994년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영상의학팀 입사
- 2017~2019년 대한방사선사협회 인천광역시회 교육이사
- 2020년~2022년 대한방사선사협회 인천광역시회 총무이사

#### 주요 수상

-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표창(2009)
- 인천광역시장 표창(2018)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2022)



## 시드니 거리에서 시작된 글로벌 챌린지 하계 글로벌 챌린지 뺑사드니팀(2025.7.21~29.)

글 조성아, 김세린, 박민서, 김동연(신구대학교 방사선학과 24학번)



우리 팀은 지난 여름, 글로벌 챌린지를 통해 호주의 시드니를 탐방할 기회를 가졌다. 시드니는 오페라하우스로 대표되는 예술의 도시이자, 첨단 방사선·의료 영상 기술과 원자력 연구 기관이 자리한 학문의 도시이기도 하다. 방사선학을 전공하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의미 있는 탐방지는 없다고 생각했다. 사실 탐방을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글로벌 챌린지에 선

정되기 위해 우리 팀은 호주 현지 방사선사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고,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에 댓글을 남기거나 컨택 메일을 보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딪쳐 보았다. 답장이 오지 않아 좌절할 순간도 있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값진 경험이었다. 우리 팀은 다양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며 호주의 기술과 문화를

경험하고, 우리나라와 비교하며 국제적 시야를 넓히는 것을 목표로 했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로열 프린스 알프레드 병원이었다. 호주를 대표하는 공립 병원으로, 969병상을 갖추고 최신 CT와 MRI 장비가 갖춰져 있었다. 또한 시드니대학교 방사선학과 학생들의 핵심 실습 병원이기도 해, 미래 임상 현장을 직접 떠올릴 수 있었다. 이어 방문한 시드니대학교는 1850년에 설립된 호주 최초의 대학으로, 방사선학뿐 아니라 의생명과학 분야에서 세계적 연구 성과를 내고 있었다. 전통적인 건축물과 캠퍼스 분위기 속에서 학문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곳은 시너지 방사선 센터였다. MRI, CT, PET, 초음파 등 다양한 첨단 장비를 활용한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짧은 인터뷰를 통해 호주의 방사선사 제도를 알 수 있었다. 1,000시간의 실습을 마치면 별도의 국가시험 없이 면허가 부여된다는 점은 우리와 달라 놀라웠다. 무엇보다도 이 방문은 원래 일정에 없었지만, 길을 지나가다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요청하면서 성사된 일정이었기에 더 특별했다. 정해진 틀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기회를 만든 도전은 우리 팀에게 큰 자신감을 안겨주었다.

또한 ANSTO(호주 원자력 과학기술 기구)에서는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과정과 중성자 산란 장비, 가속기 등을 견학했다. 보안상 촬영은 불가능했지만, 직접 연구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며 교과서에서만 접하던 내용을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시드니 아이 병원과 인간 질병 박물관 등을 탐방하며 임상과 교육의 현장을 경험했다. 특히 병리학 표본 2,500여 점

이 전시된 박물관에서는 교과서 속 질병이 실제 장기와 맞닿아 있음을 확인하며 큰 놀라움과 신기함을 느낄 수 있었다.

탐방 일정 중에는 문화적 경험도 이어졌다.

시드니의 상징인 오페라하우스, 시민들의 여유를 엿볼 수 있었던 본다이 비치, 역사적 건축물이 현대적 상업 공간으로 활용되는 퀸 빅토리아 빌딩 그리고 시드니 전경이 한눈에 펼쳐진 옹저버토리 힐까지. 학문적 탐방과 문화적 체험이 어우러진 시간이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여정 동안 우리 팀은 팀워크와 협력의 가치를 더욱 깊게 깨달을 수 있었다.

출발 전에도 계획이 여러 차례 수정되었고, 시드니에 도착해서도 예상치 못한 우여곡절이 이어졌다. 그러나 돌아켜보면 이런 과정들이야말로 대학생이기에 할 수 있었던 용기 있는 시도였고, 덕분에 더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낯선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은 우리를 한 팀으로 단단하게 묶어 주었고, 글로벌 학업 의지를 키워주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방사선학 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을 뿐 아니라 글로벌 의학 환경과 문화적 다양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환자 안전과 영상 품질 향상을 위해 전공 공부에 더 매진하고 해외 자격증 취득과 국제 탐방에도 도전하며 글로벌 방사선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한다.

시드니에서의 8박 9일은 우리 팀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자 학문적 열정을 이어갈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K**



# 숨 참으세요

툰

## 31. 컴플레인 下

웹툰 형식으로 아래로 길게 읽어주세요.



병원 선생님들은 다들 무표정에 가끔 화난 것 같은 표정이예요 라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사실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웃는 얼굴에는 침 안 뱉는다' 라는 속담이 있지만



병원이란 특성상 예민하신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어느쪽도 화나지 않았어요



저 또한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시간 컴플레인 갯수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평균 대기시간 컴플레인은 하루에 3건 이상, 의료진 태도 관련 컴플레인은 평균 1주에 1건 정도 입니다.



환자분들에게 인기남

누구보다 컴플레인을 받지 않았던 한 선생님

내가 그저께 토요일 당직을 썼는데 말이지 애들아



숨을 깊게 들이 마시시고 그대로 숨 참으세요



환자분 잘 하셨구요 이번에는 저를 옆으로 돌아보시고

양손을 올리시고



오 마이 입 괄약근이 풀려 환자 얼굴에 침이 날아갔네!~



환자분 제가 지금 뱉은 거 너무 오늘 피곤한 나머지 침이 그냥 나와 버렸나 봅니다

지금 나에게 침 뱉은 거 맞잖아!!!

그렇리가요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일부러가 아니예요

나 있지.. 토요일 퇴근도 못하고 30분 넘게 그 아주머니 진정 시키고 있었어



그 이후로 마스크 착용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숨 참으세요' 는 네이버 도전만화와 애니원툰에서 연재되었던 웹툰입니다. 네이버 http://comic.naver.com/challenge/list.nhn?titleId=690698 애니원툰 http://anyonetoon.com/AocWebtoon.aoc?webtoon\_num=57&

# 대한방사선사협회 홈페이지 E-Book 서비스 오픈 60년의 발자취, 클릭 한 번으로 만나는 특별한 기록

대한방사선사협회의 6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한방사선사협회 60년사 E-Book이 협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 [구성 및 주요 내용]

- 국문판·영문판 PDF 다운로드 : 필요할 때 바로 내려받아 보관 및 열람 가능
- 60년사 기념 영상 시청 : 협회의 역사와 성장을 생생한 영상으로 감상
- 흥미로운 엑스선 역사의 뒷이야기 (글 김건중, 대한방사선사협회 제16대, 17대 회장)

방사선사에 관한 다채로운 콘텐츠가 협회 공식 홈페이지에 마련돼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방문하셔서 풍성한 자료와 흥미로운 이야기를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E-Book 바로가기

## 건강한 정책

KRTA의 활동과 나아갈 길

### Issue \_ 48

'전문방사선사' 관련 보건복지부에 드리는 제언

### Sketch \_ 51

대한방사선사협회의 대한실드엔지니어링 탐방기

### Review \_ 56

2025 제25회 아시아-오스트랄라시아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AACRT) 참석 보고서

### Study \_ 60

ChatGPT를 이용한 통계분석\_독립표본 t-검정

# WITH KRТА

# '전문방사선사' 관련 보건복지부에 드리는 제언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방사선사 제도화 요청에 부정적이기도 하고 자격기본법에 위반된다는 시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적 제도화 요청은 무시되고 발전적인 검토 없이 일방통행을 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에 6만 방사선사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글 김건중(제15대, 16대 대한방사선사협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전문방사선사를 지난 22년 동안 국민 건강과 방사선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시행해 왔습니다. 방사선사의 교육, 임상 현장의 안전 기준, 그리고 품질 관리 체계까지 꾸준히 연구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직역의 권익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건복지부는 협회의 전문방사선사 제도화 요청에 대해 구체적 응답은 없이,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위반이라는 이유로 시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기본법에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는 민간자격 신설이 불가하다는

조문만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자격기본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무분별한 민간자격 신설이지,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적 전문인력 자격까지 배제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시정 요구보다는, 협회와 제도적 정합성을 논의하고 법제화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격기본법 제2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자격이 아닌 전문방사선사의 법제화와 더불어 등록 자격, 공인 자격 등 민간 자격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를 요청합니다. 이는 협회가 운용해 온 전문방사선사는 방사선사 국가 면허를

기반으로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화 제도를 제도권 안에서 정착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역 확대나 독립적 진료 행위가 아니라, 면허 내 업무를 보다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임도 강조합니다.

### 첫째, 국제적 흐름과 우리의 모순

국제적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 정부마다 방사선사의 기본 면허가 존재하지만, 더욱 전문화 자격 인증 제도도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1995년 이전에는 주 정부마다 방사선사 교육 제도가 달라 주별 교육 수준 등에 차이도 발생하는 등 매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5년을 기점으로 모든 주 정부의 기본 면허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전문 자격(유방, CT, MRI, NM, 초음파 등) 제도를 동시에 운용하고 있습니다.

즉, 면허와 전문 자격 인증을 이원화하여 국민 건강과 방사선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방사선사의 직역 확대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문성 심화 장치입니다.

의료기기의 급속한 발전과 의료계의 인공지능 접목에 맞춰 분야별 전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은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OECD 주요국 대부분이 분야별 전문 제도를 이미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만 이를 제약한다면 국민 안전 관리 체계는 국제 기준에 크게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20여 년간 전문방사선사 자격 인증제도를 시행하며 관련 제도화 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아직 법적 제도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건복지부는 단순히 "전문"이란 용어에 집착하여 직접적인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이란 용어에 민감해할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국제적 기준과 흐름을 반영해야만 합니다.

### 둘째,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국내 법규 현황

우리나라는 방사선과 관련된 법규와 제도가 의료법, 의료기사법, 원자력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등 수십 건에 달합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에서는 매년 국민 선량과 안전 관리를 위한 진단참고 선량 수준(DRL)을 검사 분야별로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국민이 방사선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함을 반영하는 것이며, 국가가 국민의 피폭 안전 관리와 국민 건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환자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국민 선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첫 접점에 있는 방사선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일 것입니다.

따라서 협회의 전문방사선사 교육은 이러한 법적 안전망을 실제 현장에서 실현하는 실천 장치로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 셋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과 전문 인력의 정합성 모순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MRI 장비의 품질 관리 적합 판정을 받을 때 전문 인력의 배치 여부에 따라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즉, 장비의 안전과 품질은 전문 인력(전문역, 방사선사)에 의해 담보된다고 이미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전문 인력을 제도적으로 양성하려는 협회의 노력을 가로막는 것은 주무기관역의 모순이라 할 수 있습니다.

MRI는 비전리 방사선을 사용하여 침습적인 방사선 피폭은 없지만 강력한 자기장을 활용하는데, 여기에도 매우 위험한 안전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고 자장은 금속 물체가 날아가 흡착되는 사고를 유발하고 환자의 인공 삽입물에 따른 부작용 발생, 폐소공포증으로 인한 검사 불가능 사례, 장시간 검사로 인한 환자 불편 호소 등으로 검사를 중단하는 사례는 국제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MRI 안전사고의 다수는 장비 결함이 아닌 환자의 인공 삽입물, 폐소공포증 등 인적 요인에서 발생합니다. 환자의 불안, 인공 삽입물 관리, 응급 대응 등은 방사선사가 현장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전문화된 교육과 자격을 통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이 제도를 제도권 안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국민 안전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팀 의료와 국제 사례

오늘날 의료 현장은 팀 의료를 강조합니다.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가 각자의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협력할 때 환자의 안전이 보장됩니다.

외국에는 PA와 같은 진료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RA(Radiologist Assistant)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팀 의료 안에서 진단과 치료 과정을 지원하며 환자 안전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문방사선사가 의사를 능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팀 의료의 질을 높이는 필수 자원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직역 간 갈등이 아닌, 국민 건강 향상이라는 공통 목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사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묶어 두는 것은 단순한 직역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 체계의 공백을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보건복지부에 충심으로 드리는 제언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국내의 법적 현실, 팀 의료의 중요성을 종합할 때, 전문방사선사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필수입니다.그런데도, 보건복지부가 "전

문"이라는 용어 사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제약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논리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역 단체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진정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용어 논쟁에 머무르지 말고, 협회가 추진해 온 20여 년간의 교육과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협회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전문방사선사 제도에 대하여 이미 20여 년간의 교육·자격 인증 경험이 있고, 이는 국민 건강을 위하여 국민 선량과 직결된 방사선 최소화 노력의 일환이며, 이제는 명칭 논쟁을 넘어 실질적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마무리

전문방사선사 제도는 직역 확장이 아닌, 국민 건강과 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미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흐름이며, OECD 주요국의 운영 사례는 그 타당성을 더욱 강화합니다. 또한 국내 방사선 안전 법규 체계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반대나 제약이 아니라, 전문방사선사의 등록 자격 또는 공인 자격 등 재설계와 제도화를 통해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의 사고 전환입니다. K

참고(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국가·외의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이하 생략

제2조(정의)

1.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2.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이하 생략
3. "자격제제"란 이하 생략
4. "국가자격"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5.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 5의2. "등록자격"이란 제1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을 말한다.
  - 5의3. "공인자격"이란 제19조 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말한다.
6. "국가자격관리자"란 해당 국가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7. "민간자격관리자"란 해당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주무부장관"이란 소관 민간자격을 등록받거나 공인하고 이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9. "자격검정"이란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10. "공인"이란 자격의 관리·운영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 대한방사선사협회의 대한실드엔지니어링 탐방기

글 김진수(대한방사선사협회 사업·보험부장)

대한방사선사협회의 임원진은 대한실드엔지니어링을 방문했다. 1988년 설립되어 36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대한실드엔지니어링은 단순한 차폐(Shielding) 기술을 넘어 첨단 의료, 정밀 전자, 그리고 국가 안보에 이르기까지, 현대 사회의 보이지 않는 영역을 굳건히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대한실드엔지니어링과 그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소개한다.

**대한실드 사계**

<b>1988.07</b>	대한실드엔지니어링 회사 창업
<b>1990.02</b>	MRI Shield Room 개발 - 국내최초
<b>1990.06</b>	RF Shield Door 개발 - 국내최초
<b>1990.11</b>	High Quality RF Shield Room 개발 - 국내최초
<b>1991.12</b>	Compact Anechoic Chamber 첫 국내 자체 설치 공급
<b>1992.04</b>	PD Test Shield Room 첫 국내 자체 설치공급
<b>1993.10</b>	RF Tempest Shield Room 첫 국내 자체 설치 공급
<b>1996.11</b>	Modular PAN Type RF Shield Room 개발 - 국내 최초
<b>1999.07</b>	EMC Auto Sliding Door 개발 - 국내 최초
<b>2005.10</b>	Intra-Operative MR Shield Room 설치 - 국내 최초
<b>2005.12</b>	가천대 길병원 뇌과학 연구소 7T-MR 설치 - 국내 최초
<b>2006.08</b>	ISO 9001, ISO 14001 인증 획득
<b>2007.11</b>	MR용 Semi Auto Door 관련 특허 획득
<b>2009.06</b>	동남아시아 지역 MR 설치 공급 시작 - 자체 설치
<b>2009.11</b>	RFID Anechoic 초대형 Chamber
<b>2011.06</b>	대한실드엔지니어링(주) 법인 전환
<b>2012.06</b>	mMR(Siemens) Shield Room 설치 - 국내 최초
<b>2014.10</b>	국립전파연구원(RRA) 10m Chamber 수주 설치
<b>2014.11</b>	Semi Auto Door 신뢰성 인증서 획득 - KIMM
<b>2018.06</b>	SIEMENS 신형 7T MR RF Shield 설치
<b>2018.12</b>	대한실드엔지니어링(주) 창립 30주년
<b>2019.05</b>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항공기 시험 챔버(30m*23m*12m) 수주설치
<b>2020.07</b>	경기도 시흥 신사옥 이전
<b>2020.10</b>	그린카진흥원 자율주행차량 시험행버 수주

대한실드엔지니어링은 3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묵묵히 한길을 걸어왔다.  
 '전자기파 차폐'라는 특화된 영역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축적해왔다.

2025년 7월 어느 여름날, 대한방사선사협회의 임원진은 시흥시로 향하고 있었다. 7월의 무더운 날씨로 인해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히긴 하지만, 귀한 초대였기에 방문을 미룰 수 없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방문하는 곳은 대한민국의 의료기관의 MRI의 안전하고 쾌적한 사용을 위하여, 차폐 기술의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대한실드엔지니어링이다. 현재 대한실드엔지니어링은 단순한 차폐(Shielding) 기술을 넘어 첨단 의료, 정밀 전자, 그리고 국가 안보에 이르기까지, 현대 사회의 보이지 않는 영역을 굳건히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대한실드엔지니어링 사옥을 방문하였을 때 가장 먼저 반겨준 것은 대한실드엔지니어링의 임직원의 진심을 담아 준비한 현수막이 먼저 눈에 띄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준비해주신 환영 현수막을 보니, 더위로 인한 피로가 잠시 가시는 듯했다.

대한실드엔지니어링 사옥 1층에는 그간의 역사를 담은 판넬이 준비되어 있었다. 대한실드엔지니어링은 1988년에 설립되어 36년의 역사를 갖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MRI 장비의 사용을 시작한게 1988년이라고 하니, 우리나라 MRI 장비의 시작과 대한실드엔지니어링의 시작이 같았다. 또한 대한실드엔지니어링 연혁 중에 국내 최초로 진행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 이러한 연혁으로 비추어볼 때 이는 우리나라 MRI의 역사가 바로 대한실드엔지니어링의 역사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었다. 탐방단은 사장님과 부사장님을 비롯한 임원진의 따뜻한 환대 속에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대한실드엔지니어링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회의실에서 들을 수 있었다. 회의실에서는 임직원의 소개와 함께 대한실드엔지니어링의 사업분야 및 대표 제품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었다. 인천에서 시흥으로 옮겨



진 대한실드엔지니어링 사옥은 이전보다 더 큰 규모로 지어졌다고 한다. 차폐 기술 혁신의 요람이자 숙련된 장인들의 땀방울이 맺히는 현장이었다. 특히, 이번 탐방에는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 장지필 부회장, 서영배 부회장, 그리고 이준 사업이사, 김병택 재무이사가 참석하여 대한실드엔지니어링에 대한 깊은 관심과 기대를 엿볼 수 있었다.

36년 업력에 담긴 기술 축적과 노하우의 깊이

대한실드엔지니어링은 3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묵묵히 한길을 걸어왔다. '전자기파 차폐'라는 특화된 영역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축적해왔다. 2011년 법인 전환 이후 2020년 현재 주소지로 확장 이전한 것은 회사의 꾸준한 성장세를 대변한다. 사장님의 설명을 통해 회사의 역사를 듣는 내내, 이 36년의 업력이 단순한 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와 연구 개발을 통해 얻어진 지식과 경험의 집약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는 곧 대한실드엔지니어링이 시장에서 얻은 깊은 신뢰와 흔들림 없는 브랜드 가치로 이어지고 있었다. 대한실드엔지니어링은 크게 세 가지 사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이 분야에 따라 세 가지 사업부로 나누어지는데, 메디칼사업부, 전자파사업부, EMP사업부로 나누어진다. 메디칼사업부는 MRI 장비 설치 시 MRI 장비로부터 발생하는 RF를 검사실 외부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외부의 자장이 검사 영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차폐하고, 또한 검사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검사실을 구성하는 업무를 수



행하고 있다. 전자파사업부는 상업용 및 국가 연구기관 인증 시설에 대한 전자파 차폐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EMP사업부는 국책사업 및 국방 사업 관련 EMP 방호구역 차폐 공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세 가지 사업부를 통해 연매출 160억~200억을 달성하는 기업이었다. 회사의 등록 현황을 보면 기계설비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등 다양한 건설 관련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 복합적인 차폐 공사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었다. 특히 국제 인증인 ISO 9001, ISO 14001을 취득하여, 품질 경영과 기술 혁신을 기업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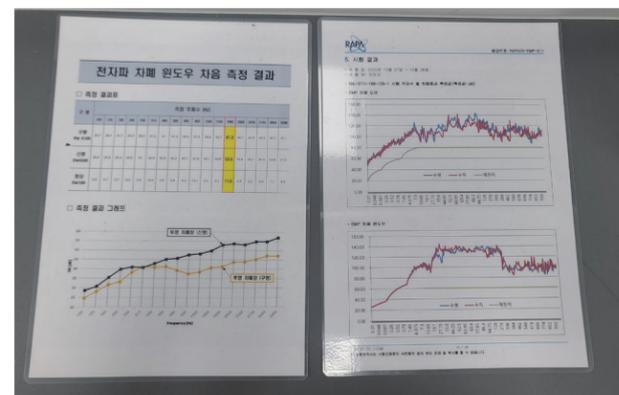
세계 유일의 기술력, 미래를 선도하다

대한실드엔지니어링의 진정한 저력은 그들이 보유한 독보적인 기술력에서 빛을 발한다. 특히 메디칼사업부의 제품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혁신성을 자랑한다. MRI실 CCTV와 방진 내수 RF Shield Floor. 부사장님은 이 두 가지 제품을 설명하며 강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기존 MRI실에서 환자 모니터링은 시야 확보의 어려움, 영상 노이즈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대한실드엔지니어링은 HD Zoom CCTV와 동작-호흡 감지 기능까지 탑재한 Salus View를 자체 개발하여 이 모든 난제를 해결했다. 이는 의료진의 환자 관찰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환자 안전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험난한 MRI 환경에서 영상 신호의 왜곡 없이 안정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이 기술은, 의료 영

상 진단의 정확성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또한, 방진 내수 RF Shield Floor는 MR 장비의 미세 진동 전달을 감소시켜 영상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습기와 같은 환경 요인으로부터 RF Shield를 보호하는 세계 유일의 솔루션이다. AL 패널과 특수 방진 패드를 이용한 이 시스템은 MR 장비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사업부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PET-MRI, 7T MRI 등 국내에 새롭게 도입되는 최첨단 MR 장비들의 전자파 차폐 설치에 대한실드엔지니어링의 기술이 필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사용자의 편리성과 방음 성능을 대폭 개선한 Auto Door, 어른거리는 현상 없이 완벽한 투시와 차폐 성능을 자랑하는 Transparent Window, 그리고 MRI실 내부로 자성 물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Ferromagnetic Detector(Salus Gate) 등 메디칼사업부의 모든 제품은 “모든 제품의 국산화 성공”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들의 기술은 단순한 기술력의 과시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핵심 요소이자, 대한민국 기술 발전의 상징이 되고 있었다.

###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기술력

대한실드엔지니어링의 경쟁력은 국내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GE, SIEMENS, PHILIPS, CANON, United Image 등 세계적인 의료 장비 회사들의 주요 벤더로 등록되어 국내 대형 병원 및 2차 병원에 연간 80~100대의 MR 차폐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이는 국내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주는 수치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해외 시장에서의 활약이다. 베트남, 필리핀,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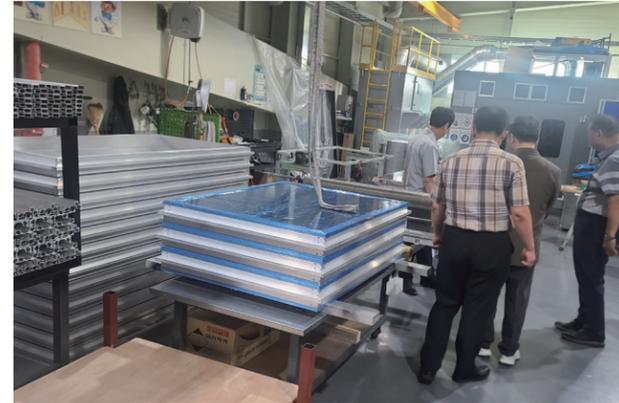
도네시아,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몽골 등 아세안 국가들을 중심으로 GE, SIEMENS, PHILIPS, CANON과 같은 글로벌 장비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연간 40~50억 규모의 해외 수출을 달성하고 있었다. 2013년 ‘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에 이어 2024년 ‘삼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것은 대한실드엔지니어링이 독자적인 기술력과 제품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다. 재무이사님은 “해외 시장은 블루오션이자 대한실드엔지니어링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이라며, 앞으로의 해외 시장 확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 산업적 중요성과 사회적 기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나는 역할

대한실드엔지니어링의 사업 분야는 메디칼사업부 외에도 전자파사업부와 EMP사업부로 나뉜다. 상업용 및 국가 연구기관의 EMC Chamber, Reverberation Chamber 등 인증시설 차폐 공사는 첨단 전자기기의 오작동을 방지하고 성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현대 사회의 모든 전자기기는 전자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의 차폐 기술은 산업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EMP(Electro Magnetic Pulse)사업부는 국책사업 및 국방사업 관련 EMP 방호구역 차폐공사를 담당하며 국가 안보 강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EMP는 핵폭발이나 강력한 전자기파 발생 시 전자기기를 마비시킬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인데, 대한실드엔지니어링의 기술은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중요 시설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 사업이사님은 EMP 방호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의 기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들의 전자파 차폐 기술은 첨단 기기의 오작동 방지 및 성능 유지, 의료 진단의 정확성 향상, 그리고 국가 안보 강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현대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탐방의 마지막 순서로 시설을 둘러보면서, 잘 정돈된 작업 환경과 최신 설비들을 보며 기술 혁신을 향한 회사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제품 생산 라인을 지나면서 담당 직원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숙련된 기술자들의 섬세한 손길이 더해져 하나의 차폐 제품이 완성되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들의 기술에 대한 자부심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시장을 선도한다는 자긍심이 묻어 있었다. 대한실드엔지니어링은 대한방사선사협회 및 자기공명기술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각종 지방 학술대회에 지원 광고를 게재하는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통해 의료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잠재 고객들과의 접점을 확대하며 시장과의 소통을 게 게을리하지 않고 있었다. 이처럼 대한실드엔지니어링은 36년간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도

전으로 ‘전자기파 차폐’라는 좁은 영역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 산업’으로 확장시켰다. 대표님은 “우리는 단순히 차폐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50명의 임직원이 만들어내는 성과는 단순히 숫자를 넘어, 이들이 쌓아 올린 기술력, 신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의 총체였다. 대한실드엔지니어링은 대한민국 기술의 자부심이자, 전자파 차폐라는 분야를 묵묵히 지켜나가며 발전시키는 현장의 장인들이었다. 이들이 앞으로 펼쳐낼 새로운 기술 혁신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다. ㉔

대한실드엔지니어링은 전자파 차폐라는 분야의 장인들이었다. 이들이 앞으로 펼쳐낼 새로운 기술 혁신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

# 2025년 제25회 아시아-오스트랄라시아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AACRT) 참석 보고서

글 김상진(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 1. 학회참석

태국 치앙마이에서 지난 6월 4일부터 7일까지 제25회 AACRT(25th Asia-Australasia Conference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제25회 아시아-오스트랄라시아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동시에 제11회 SEARC(11th Southeast Asian Radiographers Conference, 제11회 동남아시아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 제13회 ART(13th Asia Radiation Therapy Symposium, 제13회 아시아 방사선치료 심포지엄), 제33회 TSRT(33th Annual Conference of Thai Society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제33회 태국 방사선사협회 학술대회) 등 다양한 학회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어 다양한 학술적인 교류를 할 수 있었던 국제학회였다.

개인적으로는 태국에서 개최되는 공식적인 해외 국제학술대회 참가는 2번째 경험으로서 설레는 기분으로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2025년 6월 4일 인천공항에서 태국 치앙마이행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치앙마이는 태국의 북부에 있는 도시로, 아름다운 자

연경관과 풍부한 문화유산으로 유명하다. 매년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한다고 한다. 치앙마이의 6월 날씨는 일반적으로 덥고 습한 편이며, 기온은 평균적으로 26도에서 35도 사이에서 변동한다고 하지만 이번 학회 기간에는 주로 학회장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더운 날씨와는 상관없이 일정을 보내고 귀국하였다. 이번 학회의 공식적인 일정은 6월 4일부터 7일까지 총 나흘 동안 진행되었다. 저자가 15여 년 전에도 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태국의 수도 방콕에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그 후 두 번째로 태국학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날씨는 큰 변화 없이 더운 날씨였다. 주요 일정으로는 6월 4일은 ISRRT & AACRT Council meeting, SEARC Committee meeting, ARTS Committee meeting 등의 일정이 있었고, 6월 5일은 공식적인 개막식과 Keynote lecture, 각국 회원 논문 발표 등의 일정, 6월 6일은 해외 5개국에서 초청된 5명의 Invited speaker lecture와 각국 회원 논문 발표 일정, 마지막으로 6월 7일은 각국 회원 논문 발표 등으로

일정이 진행되었다.

AACRT(Asia-Australasia Conference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아시아-오스트랄라시아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학회는 매년 2년마다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국가 간에 개최국을 투표 방식에 의해서 선발하고 개최되는 전통 있는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 중 하나이며 벌써 25회가 개최되었다. 보통 소도시에서 개최될 때는 항공편이 경유해서 가야 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 학회는 태국의 유명한 관광도시 중 한곳인 치앙마이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경유 없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직항편을 이용하여 편하게 참석할 수가 있었다. 참가국은 한국, 일본, 홍콩, 대만, 마카오, 필리핀, 말레이시아, 네팔, 태국, 싱가포르, 호주 등 16개국이 참가하였다.

## 2. 학회장 분위기

국제학술대회 현장은 학문적 열기와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역동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참석한 임상에 근무하는 방사선사, 해외 여러 대학에서 참가하신 방사선학과 교수님들, 방사선학과 학생 등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활발한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지식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학회장 내에서 진행된 여러

저자와 호주 연자(Mr.Steve Laycey)



세션에서는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를 비롯한 최신 연구 동향과 기술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면서 학술적 깊이와 다양성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었던 글로벌 지식 교류의 장이었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연구 내용 발표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며 네트워킹을 시도했고, 포스터 세션이나 휴식 시간에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면서 서로 간에 활발한 교류를 갖는 시간이었다. 또한, 행사 운영 역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참가자들이 편안하게 행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 있었다. 전반적으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단순한 발표의 장을 넘어, 여러 해외 방사선사와의 교류를 통해 시야를 넓히고 학문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의 현장이라고 생각되었다.

학회장 내에 전시회에는 30여 개의 현지 기업과 해외기업들이 참가하였으며, 의료 장비 기업들의 홍보 부스도 볼 수 있었고 그 가운데 일부 기업은 한국에서 해외시장을 겨냥하여 수출을 목표로 진출한 한국기업의 몇몇 부스들도 만날 수 있었다. 여러 부스를 돌아보면서 최근 영상의학 기술의 발전 현황을 한 번 더 새롭게 설명을 들으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을 이용한 다양한 영상의학영상의 구현이 가장 인상에 남았으며, 대표적으로는 방사선 선량이 노출이 기존 장비에 비해 현저하게 저선량으로도 고화질 영상을 구현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이 전시되고 소개되었으며, 방사선치료와 관련된 다양한 아이템들의 부스업체가 특히 많이 전시되었다.

## 3. 학회 일정

주요일정으로는 4일은 ISRRT & AACRT Council meeting, SEARC Committee meeting, ARTS Committee meeting 등의 일정, 5일은 공식적인 개막식과 Keynote lecture, 각국 회원 논문발표, 6일은 5개국의 Invited speaker lecture와 각국 회원 논문발표, 마지막 7일은 각국 회원 논문발표 등으로 진행되었다.

### 1) 6월4일

(1) 세계 방사선사회 아시아-오스트랄라시아 지역 대표자회의 (ISRRT Asia-Australasia regional meeting)  
: Dr. Napapong Pongnapang(ISRRT 회장), Ms.Tan

chek wee(ISRRT 아시아-오스트랄라시아 부회장), Mr. Naoki Kodama(ISRRT Regional Director) 등 ISRRT의 임원진과 16개국 대표자와 각 협회 임원이 대표자회의에 참석하여 각자 소개와 각국의 이슈, 관심사 및 상정할 안건들을 발표하였다. 그 외 해외 국가 대표자들도 각국의 방사선사와 관련한 현안들을 보고하였다.

**(2) 아시아-오스트랄라시아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AACRT) 대표자회의**

(Asia-Australasia Conference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meeting)

: 차기 제26차 아시아-오스트랄라시아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AACRT) 개최 희망지원국들의 홍보 프레젠테이션이 있었고 프레젠테이션 이후 진행된 차기 주최 국가를 투표한 결과는 대만이 제26차 AACRT 2027년 개최국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2) 6월 5일**

주최국 태국에서 준비한 공식적인 학회 개회식이 전통문화 공연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의 교육 주제를 대상으로 특강 형식으로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오전부터 참석하여 경청하였다.

**(1) Keynote 강의 1편 진행됨**

**강의:** Collaborative activities to enhance leadership for radiographers in Asia Pacific region

(연자: Dr. Oliver Pellet, IAEA)

**내용:** 전 세계적으로 영상의학과 의사의 전체적인 수적 부족한 상황에서 영상의학의 검사의 수요 증가, 원격영상의 증가를 포함한 인공지능 영상의학의 급속한 증가 상황에서 방사선사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더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미래에는 방사선사 역할의 범위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강의하였다.

**(2) Plenary 강의 2편 진행됨**

**강의(1):** Updated liver contrast in MRI imaging

**강의(2):** Advanced X-ray dose reduction in general radiography

**3) 6월 6일, 7일**

5개국에서 초청받은 5명의 Invited speaker 강의와 AACRT workshop이 진행되었으며, 16개국 150여 편 해외 일반회원의 논문 발표가 구연과 포스터 발표로 진행되었다.

Invited speaker 강의에서는 다양한 주제로 발표되었고 논문 발표에서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과 관련한 논문들의 내용 증가는 여전한 최근 경향임을 알 수 있었다.

**(1) Invited speaker 1: Paediatrics, parents and procedural holding**

(연자: Steve Laycey, Australia)

**(2) Invited speaker 2: The impact of teleoperation on Medical Imaging technology**

(연자: Edward Chan, Hong Kong)

**(3) Invited speaker 3: Advanced Imaging Technology and Clinical Value of Photon Counting Detector CT**

(연자: Haihong Fu, China)

**(4) Invited speaker 4: The safety of MR room**

(연자: Hoyong Jung, Korea)

**(5) Invited speaker 5: Radiological Technologists in Japan: Background and Current Initiatives**

(연자: Kiokadzu Ebata, Japan)

한국회원의 발표 논문편수는 구연 2편, 포스터 3편이 발표되었다.

**(1) 한국회원 구연발표**

**박호성(아주대병원):** Advanced strategies for Gd-EOB-DPTA(Primovist) dynamic arterial phase of liver MRI

**이창현(세브란스병원):** Evaluation of scatter radiation of customized shielding plate for pregnant women in chest Posterior-Anterior Radiography

**(2) 한국회원 포스터 발표**

강충환(건국대병원), 최대연(양산 부산대병원), 김상진(서울대병원)

각 논문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여러 국가의 질문자가 다양한 시각에서 질문함으로써 다양한 관점과 질문, 피드백을 상호 교류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4. 마무리**

해외 국제학회 참석은 학문적, 전문적, 개인적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경험의 시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국제학회 참가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각 전문분야의 최근 연구 분야와 검사 기법의 추세를 파악할 수가 있고 또한 연자로 학회에 참석하면 자신의 연구를 발표하여 해외 방사선사의 피드백을 받고 향후 추가 연구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구연 발표는 영어로 발표해야 하므로 영어 발표, 토론을 통해서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 될 기회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학회

저자와 ISRRT 대표회장



에서도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의 주제는 많은 관심 분야였다. 해외 학회는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경력의 전환점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참여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제학술대회 참석을 통해 방사선 분야의 최신 기술과 글로벌 동향을 직접 접할 수 있었고, 전문직으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다양한 국가의 방사선사들과 학문적, 임상적 교류를 하며 방사선사로서의 시야를 넓힐 수 있었던 뜻깊은 경험의 시간이었으며, 특히 인공지능과 융합된 영상기술에 관한 발표는 방사선사가 향후 해야 할 역할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 AACRT 국제학술대회의 참석은 단순한 방사선학적 연구 내용의 교류를 넘어, 해외 방사선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과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리였다. 이러한 학술대회 참석을 계기로 국제적인 안목을 갖춘 전문 인력이 되기 위한 준비는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025년 태국 AACRT 학술대회 포스터



## 논문작성 시 유용한 프로그램



## ChatGPT를 이용한 통계분석 독립표본 t-검정

글 최관우(원광보건대학교)

ChatGPT를 이용한 통계분석의 두 번째 시간으로 독립표본 t-검정의 통계분석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독립표본 t-검정은 두 집단 크기 비교 연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분석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분석이기도 하다. 따라서 연구자는 독립표본 t-검정 적용 시 독립성, 정규성, 등분산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정이 만족하는지 면밀히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ChatGPT와 같은 AI 도구를 활용하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연구 결과를 확보할 수 있다.

연구를 수행하다 보면 가장 흔하게 마주치는 질문 중 하나는 “두 집단 사이에 정말 차이가 있는가?”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약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존의 약을 투여했을 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또는 새로운 기법을 적용해 영상을 획득했을 때 기존 기법과 비교해 영상이 나아지는지를 확인하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처럼 조건이 다른 두 그룹의 결과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두 집단의 크기 비교이다.

두 집단의 크기 비교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계분석 방법은 바로 t-검정(T-test)이다. t-검정은 집단 간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서로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할 때는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을, 같은 집단에서 적용 전,후 차이를 비교할 때는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사용한다. 그러나 단순히 동일 집단인지 아니면 다른 집단인지만을 판별하여 기계적으로 t-검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t-검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험 대상이 서로 독립적인지 독립성을 따져야 하고, 그 다음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정규성을 따져야 하며, 마지막으로 두 집단의 분산이 비슷하지 등분산성을 차례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는 t-검정은 3가지 전제 조건이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에 따

라 각각의 통계 방법이 결정되고, 만약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통계 방법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독립성이 만족되면 독립표본 t-검정을, 독립성이 만족되지 않으면 대응표본 t-검정을 적용해야 하며, 정규성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t-검정 대신 Mann-Whitney U 검정이나 Wilcoxon signed-rank 검정과 같은 비모수 검정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정규성이 만족되더라도 등분산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수정된 t-검정인 Welch's t-검정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처럼 두 집단의 차이를 검증하는 과정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여러 전제 조건을 만족하는지 꼼꼼히 판단해야만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통계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직접 판단하고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우선 독립성, 정규성, 등분산성 같은 용어부터 낯설고, SPSS나 R 같은 통계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여러 숫자와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막막하며,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을 때 연구 결과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ChatGPT를 이용하면 통계 지식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즉, 연구자가 자신의 데이터와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면, ChatGPT는 그에 적합한 통계 기법을 추천하고 선택 근거를 설명해 주며 더 나아가 전문가가 곁에서



그림1. 독립표본 t-검정은 두 집단의 크기 비교 시 두 집단이 서로 독립인 경우 적용하는 통계방법이다.

조언하듯이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호는 ChatGPT를 이용한 통계분석 중 두 집단의 크기 비교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독립표본 t-검정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 호에 대응표본 t-검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독립표본 t-검정은 두 집단의 크기 비교 시 두 집단이 서로 독립인 경우 적용하는 통계방법으로 **그림1**과 같이 순차적으로 독립성, 정규성, 등분산성을 만족해야 적용할 수 있다.

즉, 제일 먼저 독립성을 체크하여 두 집단이 서로 독립적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규성을 체크하고, 독립이 아닌 동일한 대상에 대해 반복 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응표본 t-검정 또는 Wilcoxon signed-rank 검정을 적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할 경우, 제1종 오류(type I error) 확률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독립성이 만족되면 t-검정은 기본적으로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규성을 체크하여야 한다. 이때 표본 수가 충분히 클 경우(일반적으로 30 이상)에는 중심극한정리(Central Limit Theorem)에 의해 정규성을 따른다고 가정할 수 있지만, 표본 수가 적거나(10 이상 30 이하, Kolmogorov-Smirnov test 나 Sapiro-Wilks test 등으로 정규성 검정) 데이터가 명백히 비정규분포를 따르는 경우에는(10 이하), t-검정의 신뢰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때는 Mann-Whitney U 검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규성이 만족되면 t-검정은 두 집단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사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등분산성을 체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등분산성은 Levene's test나 Bartlett's test를 수행하여 판단하는데, 등분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t-검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정확하기 때문에, 이때는 분산 차이를 보정한 Welch's t-검정을 적용해야 비등분산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인 제1종 오류율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독립표본 t-검정은 이와 같이 위 세 가지 조건이 순차적으로 만족해야 비로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통계에 익숙하지 않은 연구자라면 본인의 연구 데이터에 위 세 가지 조건을 하나하나 적용하여 분석방법을 선택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때 ChatGPT를 이용하면 ChatGPT가 위 과정을 자동으로 판단하여 제시해 주기 때문에 최적의 통계분석 방법을 쉽게 결정할 수 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예를 들어, 특정 장기의 CT number 값이 남성과 여성 환자 간에 차이가 있는지 증명하는 연구를 계획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통계분석 방법을 알아보려면 ChatGPT 사이트에 접속한 후 메시지 창에 본인의 연구계획을 입력하면 끝이다. 즉, ① 메시지 창에 “특정 장기의 CT number 값이 남성과 여성 환자 간에 차이가 있는지 증명하고 싶어, 어떤 통계분석 방법을 사용해야 될까?”라고 입력하고 ② 실행 버튼(Enter)을 누르면 ChatGPT가 아래와 같이 최적의 통계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전제조건 및 추가 팁까지 응답을 생성한다(그림2, 그림3).



그림2, 그림3. 통계분석 방법 선택을 위한 ChatGPT 이용 예시.



그림4, 그림5. ChatGPT를 이용한 독립표본 t-검정에 맞는 데이터 입력 시트 설계 예시.

그림3과 같이, ChatGPT가 통계분석 방법으로 독립표본 t-검정을 제시하였다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독립표본 t-검정에 맞는 데이터 입력 시트를 설계하는 일이다. 이 과정 또한 통계에 익숙하지 않은 연구자라면 매우 어려운 일인데, 왜냐하면 통계분석 방법마다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데이터 시트를 설계하여 입력하였을 경우 잘못된 시트 설계로 인해 분석이 수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ChatGPT를 이용하면 사용하고자 하는 통계분석 방법의 올바른 데이터 입력 시트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즉, ① 메시지 창에 “독립표본 t-검정을 위한 데이터 입력 시트를 엑셀 파일로 만들어줘, 한글버전으로”라고 입력하고 ② 실행 버튼을 누르면 끝이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독립표본 t-검정에 맞는 데이터 입력 시트가 만들어지고 링크를 클릭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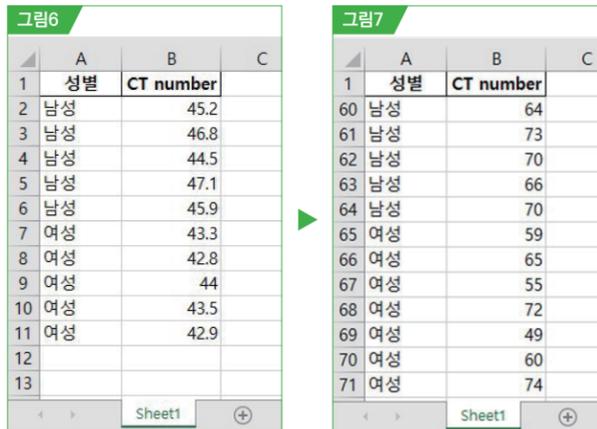


그림6, 그림7. ChatGPT가 만들어 준 독립표본 t-검정 데이터 입력 시트 이용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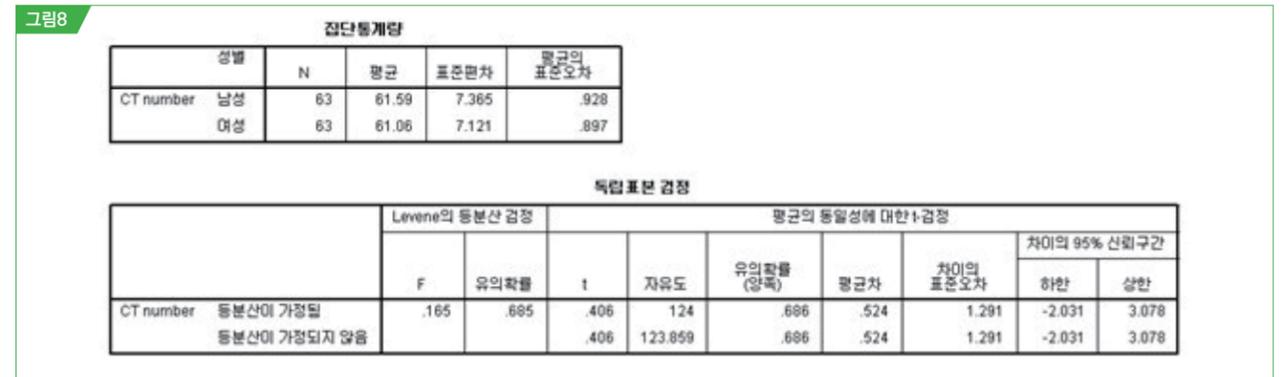


그림8. SPSS를 이용하여 완성된 파일의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한 결과물.

여 다운로드한 후 바로 사용하면 된다(그림4, 그림5).

참고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열어보면 독립표본 t-검정의 데이터 입력 시트는 하나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의 입력은 실험을 통해 측정된 남자와 여자의 CT number 값을 성별 항목의 남자와 여자 CT number 셀에 각각 입력하면 된다(그림6, 그림7).

실험 데이터를 입력하여 연구 데이터 파일이 최종 완성되었다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통계분석을 수행하는 일이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통계분석 프로그램 중 하나인 SPSS를 이용하여 동일 파일의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한 결과이다(그림8).

여기서 주요하게 보아야 할 수치는 집단통계량에서는 CT number의 남성 평균 61.59, 여성 평균 61.06이며, 독립표본검정에서는 Levene 등분산 검정의 F값 0.165, 유의확률 0.685, 그리고 t-검정에서 등분산이 가정된 라인의 t값 0.406과 유의확률 0.686이다.

ChatGPT를 이용한 통계분석은 전문 통계분석 프로그램에 비해 매우 쉽다. 즉, ① 완성된 연구 데이터 파일을 메시지 창에 끌어다 놓은 다음 ②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해 줘”라고 입력한 후 실행 버튼을 누르면 끝이다(그림9).

그러면 ChatGPT가 데이터를 분석한 후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분석 결과를 응답해 준다(그림10).

여기서, SPSS와 ChatGPT의 분석 결과를 비교해 보면, 전문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가 ChatGPT에 비해 좀 더 많은 정보와 통계지표를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통계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t 통계량이나 유의수준인 p 값은 SPSS나 ChatGPT 모두 정확히 일치한다. 즉, ChatGPT를 사용하더라도 데이터가 동일하다면 여러 전제조건이 있는 독립표본 t-검정도



그림10. ChatGPT를 이용해 독립표본 t-검정 분석 결과 얻기.

궁극적으로는 연구자가 직접 통계에 대한 기본 개념과 응용력을 갖추어야 하겠지만, 똑똑한 조력자인 ChatGPT와 같은 AI 도구를 적극 활용해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연구 결과를 확보해 보기를 바란다.



그림 11, 12. ChatGPT를 이용해 Levene 등분산 검정 수행하기

전문 통계분석 프로그램과 동일한 결과를 산출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ChatGPT가 자동으로 판단하여 적용한 Levene 등분산 검정도 아래와 같이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 12).

그런데 등분산 검정 결과는 독립표본 t-검정 결과와 달리 SPSS와 약간 다른 결과를 보인다. 이와 같은 이유는 Levene's test는 그룹 내 편차에 대해 ANOVA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여기서 중심값을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 검정값이 달라지는데, SPSS는 중심값으로 mean(평균)을 사용하지만 ChatGPT는 중심값으로 median(중앙값)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연구 데이터에 대한 통계분석이 완료되었다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검정 결과를 투고하려는 학술지의 형식에 맞게 작성하는 일이다. 이때 ChatGPT를 이용하면 매우 쉽게 작성할 수 있는데, ① 메시지 창에 '위 검정 결과를 Radiology의 투고 형식에 맞게 작성해줘'라고 입력하고 ② 실행 버튼을 누르면 된다. 그

러면 그림 13, 그림 14와 같이 투고하려는 학술지의 투고 형식에 맞게 결과가 작성되어 출력된다.

이번 호는 ChatGPT를 이용한 통계분석의 두 번째 시간으로 독립표본 t-검정의 통계분석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독립표본 t-검정은 두 집단 크기 비교 연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분석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분석이기도 하다. 따라서 연구자는 독립표본 t-검정 적용 시 독립성, 정규성, 등분산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정이 만족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ChatGPT와 같은 AI 도구를 적극 활용한다면 통계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연구 결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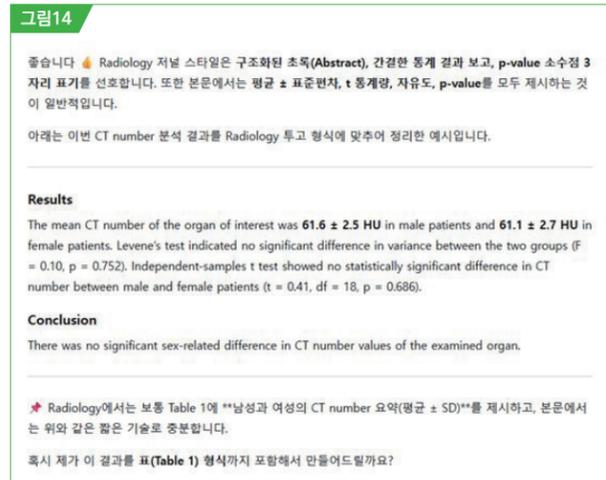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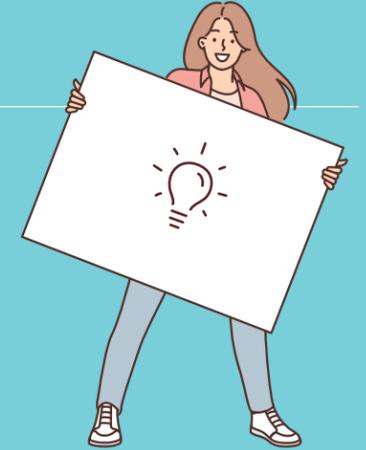


그림 13, 14. ChatGPT를 이용해 투고하려는 학술지의 형식에 맞게 검정 결과 작성하기

# 퀴즈 이벤트

방사협보 제403호를 잘 읽어보셨나요?  
아래 퀴즈의 정답을 모두 적어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퀴즈 이벤트 QR코드로 접속하여 응모해 주세요.



응모기간 10월 2일 (수) ~ 11월 18일 (화)

- 1등 골드바 (2명)
- 2등 신세계 10,000원 상품권 (20명)
- 3등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00명)

※ 퀴즈 이벤트는 정회원만 참여 가능합니다. (과년도 회비 완납자)  
※ 당첨 상품은 개별 발송하며, 12월 8일(월) 이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당첨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uiz 1 제22회 전문방사선사자격시험 및 제10회 방사선의학물리사자격시험은 전국 각 지역 몇 개 권역에서 실시했을까요? (중앙회 소식 참조)
- Quiz 2 403호 방사협보 표지에 실린 책자 정식 명칭은 무엇일까요? (표지 하단 참조)
- Quiz 3 대한실드엔지니어링 설립 연도는? (건강한 정책 참조)

## 방사협보 제402호 퀴즈 이벤트 1등 당첨 후기

안녕하세요, 이번에 방사협보 제402호 1등 당첨된 김\*민입니다. 존경하는 선임 선생님께서 권해주신 덕분에 퀴즈 응모에 참여할 수 있었고, 이렇게 당첨의 기쁨까지 누리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평소 당첨운이 없던 저에게 좋은 운을 열어주신 선임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함께 애써주신 협회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사선사 업무 권한을 지키는데 힘써주시고 이벤트 등 많은 업무를 맡으신 협회 관계자분과 각자 자리에서 빛을 내주시는 방사선사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_김\*민 회원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25년차 방사선사로 근무중인 김\*규입니다. 방사선사 협회에서 전화가 와서 무슨일인가 했는데 방사협보 퀴즈 이벤트 1등에 당첨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저에게도 이런일이 생기는구나하고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방사협보를 통하여 여러가지 소식과 업무정보등을 접하였고 퀴즈이벤트에는 거의 빠지지않고 응모를 하는편이었습니다. 한번도 당첨된적은 없었는데 1등이라니 정말 감사합니다. 전국의 방사선사 권익보호에 힘써주시는 대한 방사선사협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_김\*규 회원





# 제60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제32차 동아시아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

The 60th  
Congress of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  
32nd EACRT International Conference

방사선 기술 60년의 발자취로 의료의 미래를 여는 방사선사

Radiological Technologists Opening the Future of Healthcare  
Through 60 Year of Radiological Advancement

2025년 11월 8일(토) 09:00~18:00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



접수 바로가기

주최·주관



사단  
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The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Association

후원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